



/ Warmth
was never about
the outside /



Warmer Together
With Al Pacino & Robert De Niro



CHANEL

Contents

NOVEMBER 2025 / ISSUE.294

- 06_ **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08_ **SELECTION** 가구부터 조명, 테이블웨어에 이르기까지, 일상에 세련된 감도를 더하는 이번 시즌 리빙 아이템.
- 09_ **TIME UNVEILED** 케이스를 관통해 드러나는 무브먼트의 아름다움.
- 10_ **‘헬니스 리트리트’ 문화를 이끄는 체험의 기회** 사회적 가면을 벗어내고 스스로를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과 순도 높은 ‘인간적’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기회, 그 생태계를 둘러싼 행보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 12_ **‘꿈꿔온 게으름’이 선사하는 생동의 시간** 아만다라 탄생 10주년을 맞이해 인도네시아 군도에 자리 잡은 다섯 군데의 아만을 체험하는 여정에 동참했다.
- 15_ **BURGUNDY ALLURE** 가을 단풍색을 닮은 듯 우아한 버건디 컬러 위치에 매혹되다.
- 16_ **WARMTH INSIDE** 몽클레르의 ‘워머 투게더(Warmer Together)’ 캠페인은 브랜드만의 언어로 진정한 따뜻함이란 무엇인지 해석하고 확장함으로써 그 의미를 돌아본다.
- 20_ **QUEEN OF BEE** 쇼메는 한국에서의 팝업 전시를 통해 한번 더 아름다운 ‘비 드 쇼메(Bee de Chaumet)’ 컬렉션을 조명한다.



36



10



몽클레르가 공개한 ‘워머 투게더(Warmer Together)’ 캠페인은 브랜드가 70여 년간 품어온 ‘사랑’, ‘함께’라는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다양한 작품에서 만나 우정과 존중을 쌓아온 영화배우 알파치노와 로버트 드 니로 사이에 연결성을 부여함으로써 진정한 따뜻함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의 0030-8321-0794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kr



08



28



- 22_ **WRAP A WRIST** 넘겨라는 성별 이분법을 허물고 최소한의 장식으로 간명하게 완성한 젠더리스 브레이슬릿 7.
- 23_ **FUSION OF TRADITION** 보테가 베네타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루이스 트로타가 성공적으로 데뷔 쇼를 마쳤다.
- 24_ **THE ESSENCE OF HIDDEN LUXURY**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SUV 투아렉(Touareg)은 단단하지만 요란하지 않고, 우아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다. 투아렉의 철학을 실현해 온 오너가 말하는 히든 럭셔리의 본질.
- 28_ **FUR, SURE!** 웬지 기다려지는 이번 겨울, 감각적인 겨울 스타일, 퍼(fur)의 재구성.
- 36_ **GET THE LIST** 지금 계절에 꼭 필요한, 우아한 여성을 위한 선택선.
- 38_ **URBAN CODES** 빈티지 어번 감성을 한 스푼 더한 요즘 스니커즈 스타일.
- 39_ **WINTER WISHLIST** 최고급 소재와 절제된 컬러, 단정하고 깔끔한 디테일로 완성해 조용한 럭셔리를 보여주는 겨울 데일리 룩.
- 40_ **CHECK, CHECK!** 올가을 멋쟁이라면 꼭 하나 구비해두어야 하는 트렌디 체크 선택선.
- 41_ **SPIRIT OF PETIT h** ‘버려지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이 재창조되면서 새로운 오브제가 탄생한다’는 에르메스의 뿌피 아쉬 공방으로 초대한다.
- 42_ **EDITOR’S PICK** 새로운 향수와 캔들, 크림, 은은한 컬러의 메이크업 아이템까지. 지금 주목해야 할 이달의 뷰티 리스트.

Style

조선일보

대표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성정민 sjm@chosun.com 에디터 김하얀 stylechosun.khy@gmail.com, 윤자경 yjk@chosun.com 디지털 에디터 신정임 sj@chosun.com
인턴 에디터 김보민 bomingg0129@gmail.com 디자인 나눈컴퍼니 교열 이정현 수정 박민정
광고·마케팅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j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노연경 분해·재판 덕일 인쇄 타라티피에스
기사 및 광고 문의 02-749-5665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러곤 비즈니스센터 110호

An Exhibition by TIFFANY & CO.

TIFFANY
& CO
WITH LOVE,
SEOUL



With Love, Seoul

잠실 롯데월드타워 아레나광장
11월 1일 - 12월 14일



전시 예약하기

Tiffany & Co. © 2025 TFSO. Jean Schlumberger by Tiffany & Co.

INSIGHT



Double Take

그라프 '로렌스 시그니처 컬렉션'은 하우스 최초로 성별에 관계없이 착용 가능하며 다양한 룩에 자유롭게 레이아웃할 수 있는 유려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특히 네크리스는 진귀한 다이아몬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식적인 디테일을 최대한 배제하고 모던하고 구조적인 실루엣을 강조했다. 데일리움을 원한다면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네크리스 또는 옐로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네크리스를 추천한다. 색다른 룩을 원한다면 마치 2개의 네크리스를 레이어드한 듯한 디자인의 더블 네크리스가 제격이다. 옐로와 화이트 골드 각각에 다이아몬드를 총총히 파베 세팅해 화려한 멋도 느낄 수 있다. 가격 미정. 문의 02-2150-2320



Pop Art in Watch

피아제 워치를 사랑한 대표적인 예술가이자 1950~60년대 팝아트를 이끈 비주얼 아티스트 앤디 워홀에게 영감받은 앤디 워홀 시계 컬렉션이 공개되었다. 피아제에서 앤디 워홀의 클라주 작품을 모티브로 한 50점 한정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것. 1973 년 앤디 워홀이 착용했던 시계와 동일한 컬러인 블랙 오크스 바탕에 나미비아산 옐로 사펜틴, 핑크 오팔, 그린 크리스프레이즈 등 알개 세공한 오퍼먼트 스톤이 어우러진 디자인이 특징. 계단 디테일의 45mm 18K 옐로 골드 케이스로 완성했다. 피아제 자체 개발 셀프 와인딩 기계식 칼리버 501P1로 구동한다. 문의 02-3449-5934

Golden Harvest

은은한 빛을 품은 주얼리 셀렉션. (왼부터 차례대로) 부채라티 라마지 이어링 정교한 세공 기술로 완성한 나뭇잎과 꽃 모티브에 다이아몬드를 다했다. 1천만원대. 문의 02-6905-3490 부채론 플립 드 펑 스몰 링 은은한 광채를 뽐내는 로즈 컷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링 2천만원대. 문의 02-3277-0148 스티븐 웹스터 매그니피센트 브레이슬릿 18K 로즈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손목에 화려한 포인트를 더해준다. 매그니피센트 플립 스피릿 링 가시덤불을 엮은 듯 유니크한 디자인의 링 가격 미정. 문의 02-2231-1592 포토그래퍼 윤지영 에디터 신정임



Warm and Soft

한층 깊어진 계절, 샤넬의 '코코 네쥬(Coco Neige)' 컬렉션에서 새로운 윈터 부츠를 선보인다. 부드러운 시어링 퍼와 매끈한 카프 스킨이 조화를 이루며 견고한 러버 솔과 리본 장식 디테일이 특징. 발목을 감싸안는 짧은 길이로 클래식한 니트웨어나 켈링 정파와 매치하면 리조트 룩의 감성을, 트위드 재킷이나 슬림한 팬츠와 함께라면 도시적인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다. 베이지와 블랙, 두 가지 컬러로 선보여 그날의 룩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80-805-9628



In Bloom

다미아니 '마르게리타 링'은 데이지 꽃을 형상한 것으로 순수한 사랑과 진실된 감정을 상징한다. 데이지의 형태적 실루엣은 옐로 골드로 완성했으며 중앙은 옐로 시트린, 그 주변을 감싸 꽃잎은 다이아몬드로 완성해 우아한 매력을 더한다. 화이트·옐로·핑크 골드로 제작하며 링, 브레이슬릿, 이어링, 네크리스 등 다채로운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격 미정. 문의 02-515-1924



시대를 초월한 완벽함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워치,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추얼 데이저스트 31이 강렬한 레드 옐브레 컬러 다이얼로 선보여 또 한번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마치 태양 광선처럼 빛과 그늘의 교감을 미묘한 그라데이션 효과로 표현해 더욱 매력적이다. 여기에 18K 옐로 골드로 제작한 프레이즈먼트 브레이슬릿을 매치하고 46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반짝임을 더했다. 100m 방수나 크로노그래프 성능을 갖춘 칼리버 2236으로 구동해 성능 또한 뒤처지지 않는다. 타임리스한 디자인에 강렬한 컬러와 성능을 적용한 완벽한 여성 워치임에 틀림없다. 문의 02-6370-4298



Only For Winter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 추위를 위한 대비책으로 몽클레르의 '푸르셀라스'를 소개한다. 올 훈방 소재의 칼라와 소매, 그리고 포인트가 되어주는 태슬 스트랩 등 쏙 다룬 점퍼 스타일의 여성 보어 재킷이다. 가벼운 무게와 확실한 보온으로 일상은 물론 스키와 등산을 즐기는 이들에게도 손색없다. 4백80만원. 문의 0030-8321-0794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나스 에프터글로우 센수얼 샤인

립스틱 #888 둘째 비타 선명한

컬러와 부드러운 제형으로 입술

위에 물방울이 맺힌 듯한 촉촉함과

반짝이는 립으로 연출 가능하다. 1.5g

4만3천원대. 문의 080-564-

7700 지방시 뷰티 프리즈 글로우

세럼 파운데이션 0.5N 마이크로

하yal루론산 및 유자 추출물을 함유해

피부 탄력과 광채를 개선해주며

탁월한 커버력을 자랑한다. 3ml

9만3천원대. 문의 080-801-

9500 톰 포드 뷰티 렌웨이 아이

컬러 쿼드 #피치 글래머 샴페인

핑크와 피치를 메인으로 네 가지

컬러 팔레트로 구성된 매혹적인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5.2g

13만5천원대. 문의 1644-3952

맥 스트림 리퀴드 블러쉬 #

굿 바이브스 가볍고 촉촉하게

블렌딩되는 워터리한 제형으로

치크는 물론 립 틴트로도 사용

가능하다. 4.3ml 4만3천원대. 문의

1644-3748 켈랑 테라코타 라이트

더 썬-키스트 헬시 글로우 파우더

00 라이트 쿨 불필요한 유분기는

잡아주며 자연 유래 성분과 시머의

조화로 은은하게 빛나는 피부로

표현해주는 파우더. 10g 8만8천원대.

문의 080-343-9500 포토그래퍼

윤지영 인턴 에디터 김보민

경주로 향하는 시선 속 한국의 '현대미술'

지난 10월 말 제3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막해 전 세계의 관심이 향했던 개최지 경주에 다른 차원에서도 눈길을 받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서울과 경주, 청주에 흩어져 있던 6점의 신라 금관과 금 허리띠를 처음으로 한 데 모아 선보여 화제를 불러일으킨 한편 전통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우리나라 동시대 미술을 접할 수 있는 무게 있는 기획전이 열려서다. 보문관광단지에서 자라난 경주솔거미술관에서는 <신라한향(新羅韓香)>전이 열리고 있는데(2026년 4월 26일까지) 소산 박대성의 대형 회화를 비롯해 경주 출신의 승려이자 불화의 대가인 불화장(佛畵匠) 송천 스님, 전통회화 수복 전문가 겸 작가인 김민, 패유리를 예술품으로 거듭나게 하는 박선민 유리공예 작가 등 여러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번엔 박대성 화백이 선보인 높이 5m의 신작 '반가사유상'은 경북대 박물관에 소장된 보물 '불화 복자리 석조반가상'을 그린 작품으로, 실제로는 하반신만 남아 있지만 상상력을 발휘해 상반신까지 담아냈다. 신라시대 화가 솔거(率厓)의 이름을 딴 솔거미술관은 박대성 화백이 작품 기증 의사를 밝히면서 건립이 추진되었고, 송효상 건축가가 설계한 공립미술관이다. 건축가 김중성이 설계한 우암미술관은 지난여름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관했는데, 백남준 작가의 1980년대 작품들을 중심으로 한 기획전 <백남준: Humanity in the circuits>을 선보이고 있다. APEC에서 제안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연결, 혁신 그리고 번영'이라는 비전은 1980~1990년대 테크놀로지를 인류 정신의 새로운 확장 기능성으로 바라보고 공동체적 사유를 본격화한 백남준의 예술적 전환기와 철학적으로도 '접속'된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했다고, 특히 그의 주요 비디오 설치 연작인 '나의 파우스트' 시리즈 중 '나의 파우스트 - 경제학'과 '나의 파우스트 - 영혼성'은 국내 최초로 공개되어 이목이 끌리고 있다. 11월 30일까지, 글 고정연

EXHIBITION

박대성, '반가사유상'(2025). 사진 제공 경주솔거미술관



백남준, '나의 파우스트 - 영혼성'(1992). 사진 제공 우암미술관



하버스트 컬렉션 시그니처호박 캐서를 플람도레. 24cm, 78만원 **르크루제**.

링리더의 블랙 실린더(통통)를 누르면 벨이 울리고 미니 원숭이 위에 매달린 바나나가 흔들리는 링리더 링 벨 2백20만원 **알레시**.

책장을 깔끔하게 정리해줄 기계라 참 북엔드 2백47만원 **로로피아나**.

천연 소재로 제작했으며, 한 손에 쥐어지는 완벽한 사이즈의 구두주걱 1만5천원 **에비올라 폴라운지**.

핸드 커팅 기법으로 독특한 질감이 포인트인 Koonam 버터브라운 22만9천5백원 **락스 by 무헤**.

클로렐 프린트가 돋보이는 4개의 액세서리 트레이 세트 77만원 **구찌**.

양쪽 끝에 뾰족한 그린 크리스탈이 정교하게 세팅된 선인장 모티브의 GUFRAM Guframini CACTUS®, 11×26×11cm, 88만원대 **스와로브스키**.

부드러운 블랙 레더 인레이 장식의 투레옹 도금 스틸 소재 레터 오픈너 56만원 **몽블랑**.

공간을 은은하게 밝혀줄 테이블 램프 베이스와 램프 셰이드 가격 미정 **에트르**.

옐로 퍼 소재로 포근함과 화사함을 더해줄 그루브 앤 그루비 알체어 가격 미정 **펜디 까사**.

작우로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볼카핏 및 오크 우드 소재의 메티에(Métiers) 데스크 3천9백47만원 **에르메스**.

아카이브 프린트에서 영감을 받은 유니크한 바나나 모티브의 디자인이 돋보이는 도자기 향초 50만원대 **프라다**.

새로 나온 모노그램 플라워로 장식한 통케네디 디자인즈 플래티넘 27개 세트 42만원 **루이비통**.

르크루제 1877-4281 **구찌** 02-3452-1921 **무헤** 0507-1323-9559 **에르메스** 02-542-6622 **프라다** 02-3442-1831 **루이비통** 02-3432-1854 **펜디 까사** 02-6952-1822 **스와로브스키** 02-1522-9065 **몽블랑** 1877-5408 **누플랏** 1644-5792 **에트르** 02-3446-1321 **알레시** 02-6299-5684 **로로피아나** 02-6200-7799 **폴라운지** 02-3438-6142

Selection

유니크한 오브제와 감각적인 컬러, 장인 정신이 깃든 소재가 어우러져 공간을 특별하게 완성한다. 일상에 세련된 감도를 더하는 이번 시즌 리빙 아이템.

09

(왼쪽부터 차례대로) **파넬라이 섬머저널 S 브라부스 베르데 밀리타레 에디션** 전 세계 2백 피스 한정으로 제작된 다이버 워치로 지름 47mm 카보테크™ 케이스에 스텔레톤 오토매틱 무브먼트 P.4001/S를 장착했다. 역동적인 무브먼트의 움직임과 독특한 블랙 케이스가 어우러져 완벽한 디자인적 미학을 보여준다. 7천6백13만원. 문의 1670-1936

리차드 밀 오토매틱 스텔릿 세컨즈 크로노그래프 실리카 섬유로 한 층 한 층 쌓아 올린 복합 산소재 퀴츠 TPT® 소재의 파스텔 블루 컬러 케이스가 독특한 개성을 자랑한다. RMAC4 칼리브에 새로운 칼럼 휠을 도입해 스텔릿 세컨즈의 각기 다른 기능을 훨씬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 다채로운 컬러 베리메이션과 하이엔드 기술의 만남이 돋보이는 타임피스 6억원대. 문의 02-512-1311

오데마 피게 로열 오크 더블 밸런스 휠 오픈워크 18K 핑크 골드의 37mm 케이스와 우아한 톤온톤 미학을 보여주는 무브먼트의 조화가 돋보인다. 빛이 통과할 수 있도록 메인 플레이트와 브리지에서 가능한 한 많은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설계한 점이 돋보이는 워치 1억5천52만원. 문의 02-543-2999

피아제 홀로 스텔레톤 아이코닉한 디자인의 스텔레톤 버전으로 지름 42mm 스틸 케이스와 블루 컬러 셸프 와인딩 무브먼트 1200S1이 돋보인다. 세련된 모던함을 전하면서도 무브먼트의 복잡함이 자닌 미학을 전한다. 4천6백10만원. 문의 1668-1874

위블로 스피릿 오브 비벡 투르비옹 퍼플 사파이어 소재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브랜드만의 노하우로 빛어낸 투명한 퍼플 컬러 사파이어와 스텔레톤의 특징을 조화롭게 구성한 피스. HUB6020 매뉴백처 매뉴얼-와인딩 파워 리저브 스텔레톤 투르비옹 무브먼트의 신비로운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다. 3억3천만원대. 문의 02-3213-2277

불가리 워터 피니피코 스텔레톤 8 데이즈 이탈리아의 모던한 디자인과 스위스 워치메이킹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피스로 블랙 다이아몬드 라이크 카본(DLC) 코팅 처리한 티타늄 케이스와 러버 스트랩이 BVL 199 SK 칼리브와 만나 웅장한 품격을 자랑한다. 3천6백40만원. 문의 02-2056-0170

에디터 **성정민**

Time Unveiled

케이스를 관통해 드러나는 무브먼트의 아름다움.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2

‘웰니스 리트리트’ 문화를 이끄는 체험의 기획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돌아보기!’ 요즘 웰니스 산업을 거론할 때 자주 등장하는 ‘리트리트(retreat)’는 라틴어 레트라헤레(retrahere)에서 유래한 단어로, ‘re(back)+ trahere(pull)=잠시 물러나본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초기에는 종교적 자기 성찰을 위한 은둔의 장소, 혹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한 시설 등을 의미했지만, 점차 심신의 휴식과 치유를 위한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오늘날의 상품화된 ‘웰니스 리트리트’는 처음에는 다이어트나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스파의 파생 상품처럼 쓰이다가 건강하고 긍정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가져보려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경험과 서비스를 아우르는 윈스톱 서비스 공간으로 진화했다고 한다(‘웰니스에 관한 거의 모든 것’). 사이버 세계에 매몰된 일상에서 잠시나마 사회적 가면을 벗어내고 스스로를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과 자아를 위한 순도 높은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기회, 그 생태계를 둘러싼 행보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철저한 가공과 순수한 시간성이 지배하는 네트워크 세계에서 지리는 더욱 각별한 뜻을 가진다. ... 가장 깊은 인간의 교류는 언제나 지리적 공간에서 일어난다.
_제레미 리프킨 <소유의 종말> 중에서

미국의 저명한 학자이자 작가인 제레미 리프킨이 25년 전 발표해 지금까지도 자주 회자되는 세계적인 스테디셀러 <소유의 종말>. 물론 저자는 ‘재산의 소유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게 아니라 시장이 네트워크에 자리를 내주며 재산을 장악한 공급자가 이를 빌려주거나 사용료를 물리는 ‘접속 체제’로 바뀌고 있음을 설파했다. 이 책의 원제도 <The Age of Access>, 그러니까 ‘접속의 시대’다. 리프킨은 ‘접속’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에서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문화적 체험을 파는 사업이 각광받을 것이라며 앨빈 토플러 같은 출중한 미래학자가 일찍이 우리 사회에서 생산하게 될 ‘가장 일시적이면서도 가장 지속적인 상품’으로 ‘인간의 체험’을 꼽았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체험 경제’의 선봉장으로 관광산업을 지목하면서 19세기 중반 최초의 ‘유류 대유행’ 상품을 기획하는 등 문화 체험을 정책제의 패키지 상품으로 개발한 영국의 기업가 토머스 쿡이야말로 체험 자본주의를 최초로 도입한 획

기적인 실천가였다고 평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계 최장수 여행사였던 토머스 쿡 역시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구성의 상품 기획으로 결국은 파산에 이르렀고(2019년), 이듬해 리조트 브랜드 클럽 메드의 소유주인 중국 포션 그룹에 인수됐다. 이 배경에는 제임스 길모어 & 조지프 파인 2세 같은 경영 컨설턴트들이 ‘체험 경제’ 시대의 요인으로 누누이 강조했던 ‘잊지 못할’, ‘추억할 만한 감정을 영민하게 기획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던 탓’도 있을 것이다.

웰니스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다!
‘접속’과 ‘구독’으로 점철된 오늘날의 일상에서 우리 대다수는 직접 맛따뜨리기보다 기술을 통해 ‘매개된’, 그리고 ‘가장된’ 경험에 익숙해지고, 끌리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경험의 멸종’이라는 강력한 문구를 들고 나오기도 한다. 공학과 기계,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네트워크 사회에서 ‘접속에 빠져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기는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에 집중할 수 있는 순도 높은 경험을 소망하고 갈구하는 수요가 여전히 존재한다. 아니, 외려 ‘진정한 체험’에 대한 욕구는 더 강렬해졌을지도 모르겠다. 이는 웰니스 산업의 성장세에서도 명징하게 나타

1 인도네시아 발라섬 북동부에 있는 활화산인 아공산. 높이 3,142m로 발라섬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보사끼 사원이 이 산의 경사진 높은 곳에 자리한다. 2 발라섬 동쪽 망키스에 자리한 아만킬라(Amankila) 부지에 있는 해변에서 요가를 하고 있는 남성의 모습. ※ 1, 2 이미지 제공, Amankila 3 인도네시아 모요섬에 자리한 리조트 아만와나(Amanwana)에서 바라보는 자연의 풍경. Photo by 고성연 4 인도네시아 아남바스제도의 푸른 산호초 주위를 헤엄치고 있는 바다거북의 모습. 이미지 제공, 비와 리저브(프라이빗 리조트).



난다. 글로벌 웰니스 산업의 규모는 팬데믹 기간 살짝 꺾였다가 다시금 상향 곡선을 그리며 2022년 5조6천억 달러를 기록했고, 오는 2027년에는 8조5천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글로벌 웰니스 인스티튜트 조사). 특히 럭셔리 시장에서는 눈에 띄는 활기가 느껴진다. 세계 럭



셔리 시장을 분석한 베인 & 컴퍼니 보고서를 보면 이 분야의 소비 추이는 핸드백 같은 제품보다 크루즈 여행이나 미식 같은 경험(luxury experiences), 그리고 프라이빗 제트, 요트, 미술품 등 경험 기반의 상품으로 무게중심이 움직이고 있음이 수치로도 드러난다. 럭셔리 경험 부분의 성장률이 2023년 두 자리 수(15%)를 기록했으며(제품 부분의 성장률은 3%), 장기적 전망도 밝다. 심지어 웰니스를 지향하는 여행자들은 대체로 더 오래 머물고 더 고급의 숙박 시설을 택하며 지갑을 더 잘 연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웰니스는 더 이상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산업을 재편하는 대대적인 움직임이죠.” 스위스의 명문인 로잔 호텔 경영대학(EHL)에서 파내는 ‘EHL 인사이트’의 비앙카 루티(Bianca Lüthy)가 강조하듯 ‘산업’으로서 웰니스의 미래는 장밋빛이다. 물론 웰니스 상품, 서비스, 여행을 둘러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므로 ‘블루오션’ 생태계라고 낙관할 수는 없고, 제레미 리프킨도 일찌감치 지적했듯 진정한 체험 그 자체라기보다 ‘체험의 모방’에 가까운 문화적 상품으로 융합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는 하지만 말이다.

소통하는 문화 체험, 고독 속 평안, 무위의 경험에 이르기까지
그렇다면 단순히 보고, 먹고, 찾고, 마시는 여행에서 벗어나 ‘진정한 심포’를 키워드로 내세우는 웰니스 여행 프로그램은 어떻게 꾸려지고 있을까?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것으로는 템플스테이를 들 수 있겠다. ‘마음 챙김’ 구루를 만날 수 있는 명상 마을 같은 전문적인 리트리트도 지구촌 곳곳에 존재하지만 한국인들은 담백한

5, 6 스페인 북동쪽 아라곤 지방의 크레타스(마티라나)에 자리한 건축 스튜디오 페조(Pezo von Ellrichshausen)의 건축물 내·외부. 단기 임대 가능한 별장이며 ‘솔로 하우스’ 프로젝트의 일부로 설계된 독채 별장이다. 건축 스튜디오 페조는 2인의 건축가(가) 2002년 창립한 스튜디오로 차례에 기반을 두고 있다. ※ 5, 6 Photo by 고성연 7 일본 나가노현에 있는 호시노야 리조트 1호점인 호시노야 가루자와와 내 아이스링크에서 ‘별 보기’ 투어를 즐기는 한 쌍의 커플. 이미지 제공, 호시노야 8 해 질 무렵, 발리 우붓의 정글 풍경을 바라다보는 아만다리(Amandari) 리조트 내의 녹색 언덕. 이미지 제공, Amandari 9 일본 세토내해에서 가장 큰 섬인 아와지시마에 자리한 명상 센터 젠보 세이네이에서 선보인 다과. Photo by 고성연 10 팔공산을 배경으로 대구와 접경하고 있는 경북 군위군의 거대한 산지 정원이자 수목원인 사유원 부지에 있는 경당 ‘내삼낙원’ 외관. ‘건축의 시인’으로 불리는 포르투갈의 거장 알바루 시자(Álvaro Siza)가 설계한 건물로 한국 가톨릭계 자식인 김익진 선생과 그와 우정을 나눈 찰스 메우스 신부에게 헌정하는 경당이다. 지금까지 알바루 시자가 설계한 경당 중 규모가 가장 작다. Photo by 고성연

음식에 명상, 다도 등의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템플 스테이는 월정사 ‘옴뿔’처럼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찾아볼 수 있다(다만 템플 스테이는 웰니스 리트리트의 꽃인 스파 프로그램이 아쉬울 수 있다). 일본 건축가 반 시게루가 설계한 아와지시마의 명상 센터 젠보 세이네이는 삼나무 향 가득한 친환경적 공간이 인상적인데, ‘발효 왕자’라고 불리는 후시키 노부아키가 감수해 개발한 설탕, 기름, 유제품, 밀가루를 일절 배제한 산방 요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반아웃 상태거나 트라우마 치료 같은 강도 높은 돌봄을 필요로 한다면 의사, 영양사, 테라피스트 등 전문가의 세심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인스티튜트, 전문적인 웰니스 시설도 있다. 물론 상당수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웰니스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꾸리고 있고, 그 콘텐츠의 다채로움이 일취월장하고 있다.

‘웰니스 리트리트’라는 단어가 입에 붙지 않았던 시절인 1980년대부터 ‘고요함’을 내세우며 외딴섬이나 깊은 산속, 또는 사막 등 도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대자연을 벗하는 안식처 개념의 리조트를 열었던 개척자 아만(Aman)이나 로잔 집단의 DNA와 일본 전통을 현대적으로 잘 버무린 호시노야 같은 브랜드는 대중적인 ‘럭셔리 힐링 스테이’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다. 아만의 경우, 도심형 호텔인 아만 뉴욕과 아만 나이트방콕에 전문가를 대동한 메디컬 스파를 두고 있기도 하다. 대다수의 웰니스 호텔들은 명상, 요가, 디지털 디톡스, 문화, 예술, 건강 한 미식 등 다양한 문화 요소를 융합적으로 접목한 ‘컬처 리트리트’를 지향한다. 사실 타지에서 낯선 이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꽤 고단한

을 동반한 여정임을 감안할 때, 여행길에 오른 이들은 대체로 평화로움을 추구하지만, 그렇다 고 극도의 고적함을 원하지는 않기에, 자연스러운 물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험의 스펙트럼을 갖춰놓는 것이다. 여행이 문화 체험을 내세운 상품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인간이 보여주는 미소와 손길, 그리고 예술이 선사하는 창조성에서 위로와 기쁨을 받지 않는가.

소박하고 따뜻한 환대로 정겨움이 느껴지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럭셔리인 아만, 호시노야 같은 곳과 달리 오히려 ‘홀로움’에 초점을 맞춰 설계된 부티크형 호텔도 점점 눈에 많이 띈다. 필자가 지난해 말 방문한 스페인 아라곤 지역의 솔로 하우스(Solo Houses)는 그야말로 인적 없는 외진 산속에 솟아 있는 독채 별장인데(단기 임대 가능하다), 쟁쟁한 건축가들이 저마다의 창의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소산으로 여전히 진행형이다(15개의 건축 스튜디오가 참여하는데, 현재는 2채가 들어서 있다). 갤러리 오피스들이 운영하는데도 내부에 흔한 그림 한 점 걸려 있지 않은 미니멀한 분위기고, 최소한의 서비스 인력만 ‘거의 안 보이게’ 있다. 혹여 동반인이 있더라도 저마다 독립적인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테다 마침 인터넷 연결 신호도 약한 터라 ‘심심함 속 힐링’을 노력봄직하다. 철학적 한병철이 주장했듯 ‘무위’는 정신적 금식이고 ‘금식은 치유’라는 공식, 그리하여 삶의 생동성과 찬란함을 돌려준다는 얘기에 동감하는 여행자라면 안성맞춤일 듯하다.

글 고성연





인도네시아 섬 오디세이 with 아만(Aman) 1편

‘꿈꿔온 게으름’이 선사하는 생동의 시간

이제는 도쿄, 뉴욕, 방콕 같은 메트로폴리스에도 도심형 리조트가 자리하지만, 원래 아만(Aman)은 분주한 도심이나 시끄러운 관광지를 벗어난 호젓하고 외진 곳에 천혜의 자연을 빚 삼은 집 같은 안식처 개념의 리조트로 출발했다. 1988년 태국 푸켓에 1호점인 아만푸리(Amanpuri)를 선보여 참신한 파장을 던진 이래 지구촌을 아우르는 여행 생태계에 은은한 지각변동을 일으키며 하나의 문화를 창출해낸 선구적인 브랜드다. 산스크리트어로 ‘평화라는 뜻의 이름을 브랜드 정체성에 탁월하게 녹여낸 아만 창립자는 지금은 회사를 떠났지만, 아직도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리는 호텔리어 아드리안 제차(Adrian Zecha, b. 1933)로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이다. 미국 유학파인 그는 졸업한 뒤 일본 도쿄에서 <타임>지 기자로 근무하다가 직접 잡지를 창간하는 등 미디어업계에서 활동하면서 아시아를 두루 여행했고, 문화의 빛나는 다양성과 풍부함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은 애정과 지식을 담아 시작됐기에 아만은 여전히 대다수(36개 중 24개)가 아시아에 포진하고 있다. 아드리안 제차는 사업 초기에 모국인 인도네시아의 발리섬에 잇따라 호텔을 열었는데, 먼저 1989년 우붓에 아만다리(Amandari), 1992년에는 동쪽 망기스에 아만킬라(Amankila)를 각각 개장했다. 이듬해인 1993년에는 발리에서 비행기로 1시간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숄바와의 모요섬에 글램핑 사이트인 아만와나(Amanwana)를 선보였다. 이들은 아만 특유의 소박하고 따뜻한 현대의 DNA를 오래도록, 끝까지 간직해왔다는 공통분모를 지녔다. 그리고 그로부터 무려 22년 뒤에는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운 섬들을 물길로 누비는 대망의 프로젝트인 아만다라(Amandira)가 등장했다. ‘느림의 미학’이 지닌 정수를 담아낸다는 요트 호텔이다. 이어 2018년에는 덴파사르 공항에서 멀지 않은 아만 누사두아 빌라(Aman Villas at Nusa Dua)가 생겼다. 아만다라 탄생 10주년을 맞이해 인도네시아 군도에 자리 잡은 다섯 군데의 아만을 체험하는 흔치 않은 여정에 동참했다. 아만과 함께한 ‘아일랜드 오디세이(Island Odyssey)’ 1편은 ‘텐트(아만와나)’와 ‘요트(아만다라)’를 무대로 삼는다.

참된 행복은 목적 없고 효용 없는 것 덕분에, 고의로 장황한 것 덕분에, 비생산적인 것, 에둘러 가는 것, 궤도를 벗어나는 것, 남아도는 것, 아무것에도 유용하지 않고 아무것에도 종사하지 않는 아름다운 형식들과 몸짓들 덕분에 있다. <한평생 <관조하는 삶> 중에서

아만와나(Amanwana) 평화로운 숲에서의 ‘무위’가 주는 축복

오랫동안 전 세계 여행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신들의 섬’ 발리의 동쪽에는 롬복이 있고, 롬복에서 더 동쪽으로 향하면 숄바와(Sumbawa)가 있다. 발리와 플로레스 사이에 위치한 동부의 섬들이 자리 잡은 서누사탕가와 지역에 속한다. 고작 수십 명의 승객을 태우는 작은 비행기지만 발리에서 오가는 직항이 생긴 덕분에 가뿐히 도착한 숄바와는 ‘서퍼들의 파라다이스’라 불리는 한적한 섬이다. 여기에서 다시 보트를 타고 조금만 가면 아만와나를 품은, 꿈결 같은 모요섬과 만난다.



3

4



2

잘 알려졌듯 인도네시아는 무려 1만7천여 개의 섬이 5,000km에 걸쳐 늘어선 세계 최대 ‘군도의 나라’다. 그래서 숨어 있는 여행지가 많다지만 모요섬은 이곳을 발견한 초기 모험가들의 ‘희열’이 상상될 만한 외진 곳이다. 시간의 흐름이 절로 느려지는 듯 평온한 걸음이지만, 놀랍도록 풍요로운 해양 생물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스노클링과 다이빙 포인트를 지닌 바다, 사슴이 노니는 울창한 숲, 그야말로 ‘날것’ 그대로의 야생이 숨 쉬는 섬이다. 뒤로는 짙은 녹음을 병풍처럼 두르고, 앞으로는 언제나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모요섬의 해변에 사파리 텐트 17채가 사이좋게 펼쳐져 있다. ‘평화로운 숲’이라는 아만와나의 뜻이 절로 수긍되는 풍경이다. 수면 위로 등을 반짝이며 헤엄치는 아기 상어를 보고 뜬 마음이었을까? 모요섬에서의 첫날 아침에는 필자 같은 늦잠꾸러기도 동틀 무렵 절로 눈이 떠졌다. 도착한 날의 한낮에는 쪽빛에 가까운 진한 파랑을 띠더니, 새벽녘에는 은은한 연하늘색과 옅은 청록색이 층층으로 일렁이는 물결의 세레나데가 잔잔히 퍼진다. 뒤편에서 해가 뜨는 리조트의 위치 덕분에 살짝 연분홍 색조만 드러온 하늘을 배경으로, 나바호 원주민의 천 작업에서 영향을 받은 흔적이 있는 화가 아그네스 마틴의 가로선이 화면을 담백하게 흐르는 그림 같다. 그런

1 야생의 마을 거의 그대로 머금고 있는 산과 숲, 바다를 누릴 수 있는 아만(Aman)의 여정은 요트 항해를 할 수 있는 아만다라(Amandira)에서 극대화된다. 마음만은 ‘오디세이’를 방불케 한다. 2 모요섬에 자리한 아만와나(Amanwana)의 모습. 하늘길을 이용한다면 숄바와 베사르 공항에서 다시 날렵한 스피드 보트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헬리콥터 비행도 가능하다. 3, 4 아만와나의 숙소는 모두 사파리 스타일의 하얀 텐트로 이루어져 있다. 동일한 면적(58㎡)으로, 크게 정글 텐트, 오션 텐트로 나뉜다. 5 아만와나만(Amanwana Bay) 근처의 바다는 스노클링과 다이빙의 천국이다. 6 코코넛 밀크와 강황을 넣어 노란 빛깔을 띠는 ‘나시 쿠닝’ 쌀밥과 반찬을 곁들이는 ‘라이스타펠(Rijstafel)’ 요리. 네덜란드 식민 지배기의 요리 문화에서 출발했다.

라부안 아지(Labuan Aji) 절정의 맑음을 품은 천연 폭포의 마을



7

8

기다란 데이베드에 느긋하게 누워 창밖을 바라보면 ‘멍 때리기’는 가장 쉬운 일이 되어버린다. 어떠한 터키 석도 당해내지 못할 만큼 맑고 영롱한 청록빛 바다를 머금은 아만와나만(Amanwana Bay)이 아닌가. 모요-사톤타 국립공원의 일부로, 산호초가 풍요롭게 터를 잡고 있는 플로레스해의 36,000ha에 걸친 때 묻지 않은 천혜의 자연. 가끔은 바깥에서 바스락거리며 돌아다니는 원숭이의 존재가 느껴지고, 이따금 자신의 이름을 증명이라도 하듯 “게코~”라고 우는 게코도마뱀의 소리가 낯설지만, 어느새 텐트라는 보금자리 속 일상에 익숙해졌다. 삼림욕의 싱그러움 에너지와 찜조한 한 바다 내음의 하모니는 긴장을 늦추고 서서히 기분 좋은 심심함에 빠져들게 해주었다. 프랑스 작가이자 철학자 롤랑 바르트가 말했던 ‘꿈꿔온 게으름’의 맛보기 정도는 될지도 모르겠다. ‘무위’의 시간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텐트 밖은 위험해(?)’라는 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스러지는 걸까? 결국에는 평소 바다에 가더라도 ‘물 문히기의 귀찮음’에 자주 하지 않았던 스노클링에 자신해서 나섰다. 아만와나의 장점은 해변에서 바다를 향해 아주 살짝만 전진해도 수려한 바다의 생명체를 물 밑으로 생생히 볼

7 모요섬을 탐험하는 이들이라면 ‘필수 코스’처럼 찾는 라부안 아지(Labuan Aji) 마을에는 ‘선선놀음’을 연성시키는 맑고 시원 계곡과 폭포가 있다. 아만와나 손님들은 계곡에서 간단한 피크닉을 즐길 수도 있고, 전문 힐러와 동반해 나지막한 ‘움 천탕’이 숲의 세레나데처럼 은은하게 들리는 가운데 ‘플로팅 사운드 배스(Floating Sound Bath)’를 경험할 수도 있다. 8 라부안 아지의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면 울창한 숲속에 있는 마타 지투(Mata Jitu) 폭포. 이미지 제공: 아만 9 계곡 투어와 함께가는 지프의 모습. 유료 이슬람 모스크가 보인다. ※ 홈페이지 www.aman.com

수 있을 정도로 스노클링을하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점이다. 사실 대모거북, 푸른바다거북, 곰치, 숭배기 같은 바다 생물들이 정말로 궁금한 것은 아니었지만 은근히 신이 났다. 더구나 물속에서 유명하다가 옆을 보면 늘 곁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요가’라는 이름의 어리지만 듬직하고 노련한 ‘스노클러’ 스승과 함께했기에 든든했다. 몸은 좀 고단해도 스파 텐트로 향하면 된다는 생각에 스노클링을 다시해보자고 요가와 느슨한 악수까지 했다. 그리고 금기가 스노클링 선생님이 요가와 ‘블링크’ 소녀의 고향 마을인 라부안 아지로 향했다. 아만와나에서 배로 10~15분 거리에 있는 라부안 아지 인근은 커다란 산호초의 서식처인데, 1백 세 넘는 정수 산호초도 있다. 이번에도 굳이 산호초를 목표로 한 건 아니었다. 마을 자체가 궁금하기도 했고, 인간의 발길을 덜 타 궁극의 맑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폭포들을 보고 싶기도 했다. 그중 백미는 아만와나만에 이어 1990년대 초 모요섬의 명물이 된 폭포를 발견한 배리 리스(Barry Lees)의 이름을 딴 ‘배리의 폭포’로, ‘마타 지투 폭포(Mata Jitu Waterfall)’라고도 한다. 근처에 더 있지만 호젓이 흐르는 다른 계곡도 있는데,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1993년 아만와나를 방문했을 때 해엄을 친 장소라고. 아만와나 손님이라면 이 계곡에 띄운 튜브 형태의 선베드에 누워 힐링 세션을 경험할 수도 있다. 현지 힐러의 ‘움 천탕’이 들려오는지도 모르게 반쯤 잠에 빠져들었다. 돌아오는 길에 나무 조각에 누군가가 새긴 글귀가 눈에 띄었다. ‘작은 낙원까지 앞으로 150m!(150m menuju surga kecil)’



9



5



6



아만디라(Amandira)

군도의 축복을 온몸으로 느끼는 바다 위 용맹한 안식처

‘평화롭고 용맹한’이라는 뜻을 지닌 아만디라는 인도네시아 전통 목선인 ‘피니시(Phinisi)’에서 영감받아 설계됐다. 52m 길이의 늠름하고도 우아한 몸체를 지닌 이 배는 처음부터 아만의 프라이빗 요트 항해를 위한 맞춤 설계를 거친 뒤 콘조 부족 장인들이 현지 원목으로 세심하게 수작업으로 제작했다고 한다. 2015년 처음 닻을 올리고 출항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는데, 여전히 ‘꿈의 호텔’로 선망받고 있다.

모요섬에는 리조트가 아만와나밖에 없다. 고요함이 흐르는 가운데, 낮에는 유유자적 다이빙과 스노클링을 즐기면서 저녁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힌 검무른 하늘을 보는 ‘스타게이징’ 보트를 타는 낭만을 누릴 수도 있지만 별다른 오락거리는 없다. 누군가는 물을지도 모르겠다. 굳이 인적 드문, 그리고 꽤 오래된 안식처를 찾아 그토록 먼 길을 떠나는 이유가 뭐냐고, 선뜻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하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품지 않으려고”라고 부연하면 대다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스트레스 사회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혹은 자신을 내려놓는 소극적 저항 같은 여정이라고나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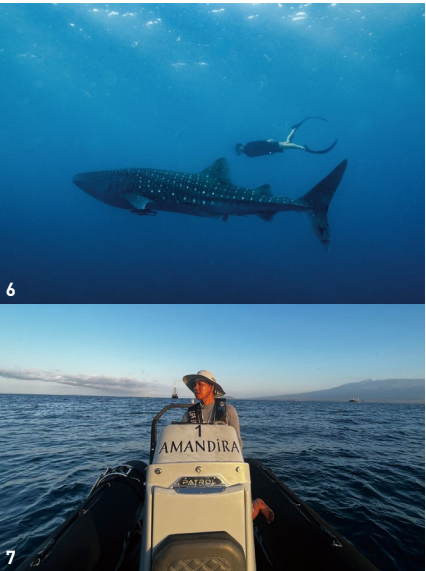
아만와나에는 이렇듯 대자연의 소리와 풍경만을 벗삼으며 지내는 ‘무위’의 행복을 느끼려고 반복적으로 찾는 이들이 꽤 있는데, 거의 해마다 찾은 지 10년이 훌쩍 넘었다는 한 모자(母子)도 마타 지투 폭포로 가는 길에 만났다. 해변을 바라보는 키 큰 나무 옆 테이블이 있는 명당 자리에 앉아 있노라면 투숙객들 외의

이방인(?)을 가끔 목격할 수도 있다. 다른 아만 자신의 배로 이 바다, 저 바다를 누비면서 항해하는 요트족이다. 필자도 아만와나에 체류할 때 마치 신기루처럼 요트가 해안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걸 봤는데, 프랑스에서 2년째 프라이빗 크루즈를 하고 있다는 한 커플의 깜짝 방문이었다. ‘와, 부러운 인생이네~(what a life!)’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들의 여정만큼은 아니겠지만 아만와나에서의 정정은 역시 날렵하고 단단한 프라이빗 요트 아만다라 1박 2일 승선이었다.

아만다라는 최소 3박 이상의 전세 서비스로 한 번에 한 팀(최대 10명)만 예약 가능한 프라이빗 요트 호텔이다. 물론 크루즈나 세일링을 즐기는 이들에게 3박은 짧지만, 그마저도 바쁜 일상에서 힘들게 켜를 내야 하는 이들이 인도네시아의 군도 절경을 바다 위에서 즐길 수 있는 축복 같은 항해 노선을 소화하려면 그 정도는 필수적인 일정이고, 대개 닻새는 가뭄히 넘게 소요된다. 엄연히 체크인-아웃을 하는 ‘호텔’다운 쾌적한 숙박을 염두에 두고 서서히(항속 4~8노트) 움직이기

1 일몰 무렵에 아름답게 빛나는 아만디라(Amandira)의 자태. 2 아만디라의 전문성이 돋보이는 크루. 3 아만와나에서 작은 보트를 타고 ‘도킹’해 다녔다는 아만디라의 발판. 4, 5 아만다라는 티크를 비롯한 다양한 목재로 이루어져 있는데, 승선하자마자 신발을 벗고 돌아다니며 기분 좋은 나무의 감촉을 누릴 수 있다. 아만다라 내에는 강배드와 샤워 시설 등을 갖춘 3개의 캐빈과 벙크베드가 있는 27개의 캐빈이 손님용으로 함께하는 스노클링, 모요섬 동쪽의 살레 배이는 고래상어 서식지로 유명하다. 아만와나 투숙객들도 아만디라를 타고 항해를 떠나는 경우가 꽤 있다. ※ 1, 2, 4~6 이미지 제공, 아만

도 하거나와 블록버스터 영화에나 나올 법한 ‘코모도 드래곤(지구상에서 살아 있는 가장 큰 도마뱀으로 불린다)’이 서식하는 코모도섬, 스파이스 제도 등 항해 노선 자체가 범상치 않기도 하다. 아만디라의 크루즈 디렉터인 스티븐 커닝햄은 “대개는 6노트 정도로 느리게 항해한다”며 “손님들의 면면도 흥미롭지만 이 배에 탑승한 크루도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강조했다. 항해사는 물론 다이버, 셰프, 테라피스트 등 14~15명의 분야별 전문 크루는 오로지 ‘나’를 위해 존재한다. 심지어 커피도 식사도 ‘아만디라’가 최고라며 엄지 척을 하는 손님들이 많을 정도다. 하지만 그 매력적인 미식도 갑자기 돌고래 몇 쌍이 등장했다는 소식에 뒷전에서 밀렸다. 일출과 함께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라는 고래상어를 보고 난 뒤 아침 식사로 한숨이 나올 정도로 맛난 부부리 아담(닭죽)을 즐기던 중에 “돌고래가 나타났다”는 크루의 외침에 다들 포크를 놓고 갑판 위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한동안 허영없이 돌고래의 춤만 바라봤다. 글 고성연(인도네시아 현지 취재)



Burgundy Allure

가을 단풍색을 닮은듯 우아한 버건디 컬러 워치에 매혹되다.
PHOTOGRAPHED BY PARKJAEYONG



(위부터 차례대로) 예거 르플렉스 리베르소 원 듀엣로 가로세로 20x40.1mm 사이즈의 핑크 골드 케이스에 위아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살버 피니싱 선웨이 패턴 기요세 다이얼과 미드나잇 블루에 버건디 스텝글래저 처리한 다이얼, 두 연으로 사용 가능한 워치 4천40만원. 문의 1877-4201

IWC 포르토티모: 오트매틱 문페이즈 37 브의 해 에디션 지름 37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붉은 에나멜을 발산하는 버건디 컬러 다이얼과 스트랩을 매치해 강렬한 인상을 주는 워치. 뱀모양으로 정교하게 제작한 5N 골드 로터가 특징이다. 1천3백70만원. 문의 1877-4315

불가리 디바스 드림 워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지름 33mm 로즈 골드 케이스에 레드 우드 소재의 디테일과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성한 다이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스트랩 역시 레드 엘리게이터 소재로 마무리했다. 4천2백만원. 문의 02-6105-2120

바세론 콘스탄틴 트래디셔널 문페이즈 지름 36mm 핑크 골드 케이스와 9시 방향에 위치한 문페이즈가 시선을 사로잡는 머더오브펠 다이얼이 포인트. 창립 270주년을 기념해 2백70피스 한정 수량으로 제작했다. 자주색 엘리게이터 스트랩이 포인트. 7천5백만원. 문의 1877-4306

소파드 디아망드 로즈 골드 소재의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버건디 컬러 호안석으로 다이얼을 완성해 포인트를 주었다. 베젤에는 24개의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4.9캐럿을 세팅해 우아하게 완성했다. 1억 4천3백27만원. 문의 02-6905-3390

에르메스 워치 에르메스 컷 르 망 서스펜뒤 에르메스만의 독특한 컷을 적용한 지름 39mm 원형 케이스가 돋보이는 워치. 로즈 골드 소재로 제작했으며 은은한 버건디 컬러 다이얼로 완성했다. H1912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542-6622

까르띠에 탱크 아메리칸 워치 플래티넘 케이스에 아르데코 에니메이션을 더한 세컨 워치 다이얼이 클래식하고 우아하다. 세미-매트 버건디 엘리게이터 가죽 스트랩을 매치하고 각면 크라운에 루비를 세팅해 완성했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326 에디터 성정민

1,2 몽클레르의 '워머 투게더' 캠페인은 영화 <대부>, <의로운 살인>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우정을 쌓아온 알 파치노와 로버트 드 니로의 모습을 담아 따뜻함은 물리적 온도에서 오는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피어나는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브랜드의 철학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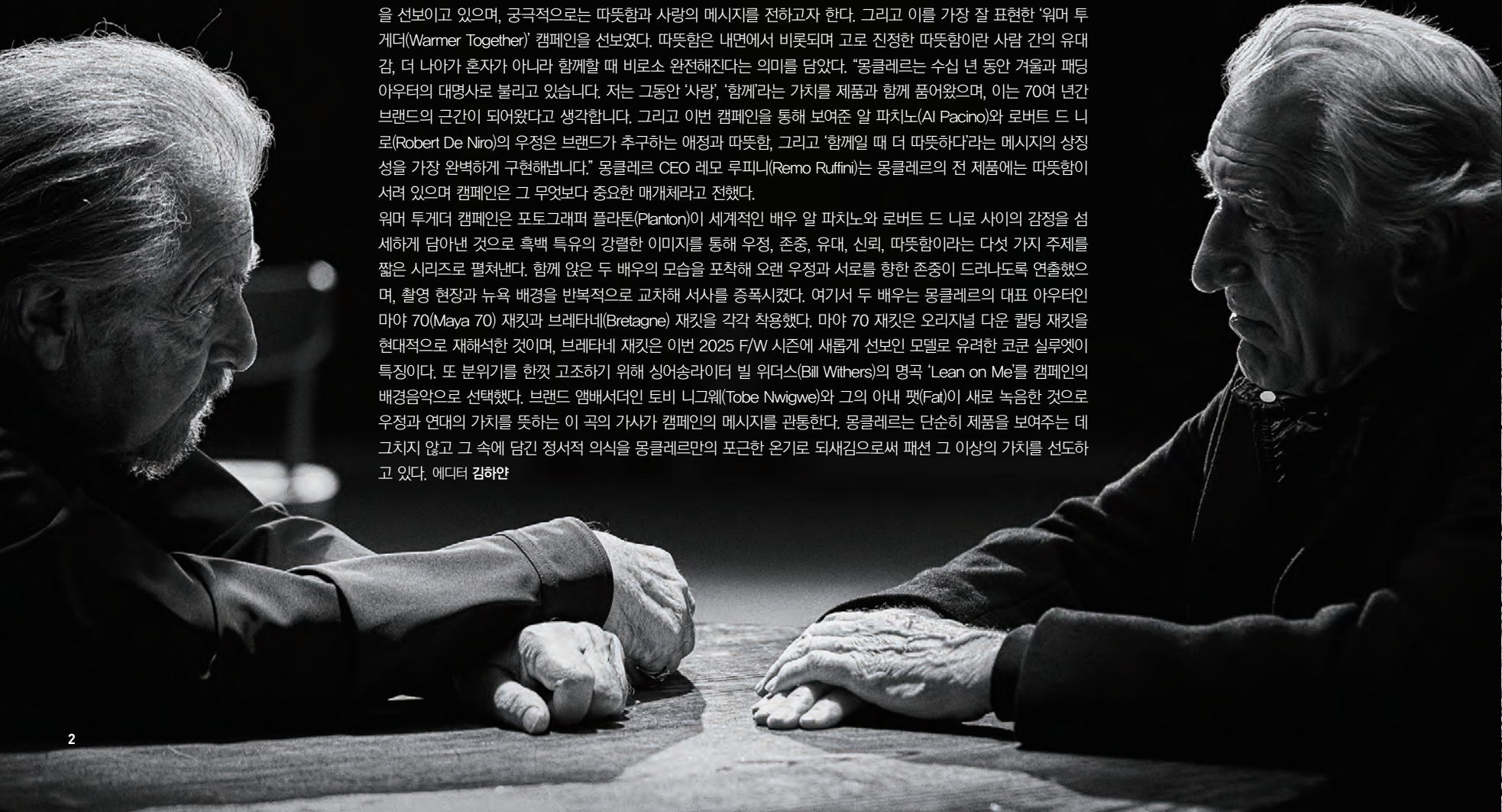


Warmth Inside

몽클레르가 전개하는 '워머 투게더(Warmer Together)' 캠페인은 따뜻함과 사랑을 표방한다. 여기서 말하는 따뜻함은 단순히 피부로 느껴지는 온기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와 연결을 뜻하기도 한다. 캠페인 속 알파치노와 로버트 드 니로의 관계성을 통해 브랜드만의 언어로 진정한 따뜻함이란 무엇인지 해석하고 확장함으로써 그 의미를 조명한다. 이에 더해 몽클레르가 지닌 건실적인 비전과 혁신적인 기술력을 새로이 탐색해본다.

1952년, 알프스의 추위로부터 등반가와 산악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탄생한 몽클레르.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고취하기 위해 70여 년에 걸쳐 발전시켜온 혁신적인 기술력을 발휘해 아우터를 비롯한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따뜻함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가장 잘 표현한 '워머 투게더(Warmer Together)' 캠페인을 선보였다. 따뜻함은 내면에서 비롯되며 고로 진정한 따뜻함이란 사람 간의 유대감, 더 나아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의미를 담았다. "몽클레르는 수십 년 동안 겨울과 패딩 아우터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랑', '함께'라는 가치를 제품과 함께 끌어왔으며, 이는 70여 년간 브랜드의 근간이 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보여준 알 파치노(Al Pacino)와 로버트 드 니로(Robert De Niro)의 우정은 브랜드가 추구하는 애정과 따뜻함, 그리고 '함께일 때 더 따뜻하다'라는 메시지의 상징성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해냈습니다." 몽클레르 CEO 레모 루피니(Remo Ruffini)는 몽클레르의 전 제품에는 따뜻함이 서려 있으며 캠페인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매개체라고 전했다.

워머 투게더 캠페인은 포토그래퍼 플라톤(Planton)이 세계적인 배우 알 파치노와 로버트 드 니로 사이의 감정을 섬세하게 담아낸 것으로 흑백 특유의 강렬한 이미지를 통해 우정, 존중, 유대, 신뢰, 따뜻함이라는 다섯 가지 주제를 짧은 시리즈로 펼쳐낸다. 함께 앉은 두 배우의 모습을 포착해 오랜 우정과 서로를 향한 존중이 드러나도록 연출했으며, 촬영 현장과 뉴욕 배경을 반복적으로 교차해 서사를 증폭시켰다. 여기서 두 배우는 몽클레르의 대표 아우터인 마야 70(Maya 70) 재킷과 브레타네(Bretagne) 재킷을 각각 착용했다. 마야 70 재킷은 오리자널 다운 월딩 재킷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며, 브레타네 재킷은 이번 2025 F/W 시즌에 새롭게 선보인 모델로 유려한 코운 실루엣이 특징이다. 또 분위기를 한껏 고조하기 위해 싱어송라이터 빌 윌더스(Bill Withers)의 명곡 'Lean on Me'를 캠페인의 배경음악으로 선택했다. 브랜드 앰배서더인 토비 니그웨(Tope Nwigwe)와 그의 아내 팻(Fat)이 새로 녹음한 것으로 우정과 연대의 가치를 뜻하는 이 곡의 가사가 캠페인의 메시지를 관통한다. 몽클레르는 단순히 제품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정서적 의식을 몽클레르만의 포근한 온기로 되새김으로써 패션 그 이상의 가치를 선도하고 있다. 에디터 김하얀



오리자널 다운 월딩 재킷을 동시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마야 70 재킷, 빅 포켓이 달린 코튼 소재 팬츠, 트레일그립 GTX 스니커즈 모두 가격 미정 몽클레르 컬렉션.

브랜드의 산악 DNA가 담겨 실용성과
보온성을 모두 갖춘 마야 70 재킷,
부클레 소재의 후드 집업, 울 소재
블랙 팬츠, 피크 트랙 하이킹 부츠
모두 가격 미정 몽클레르 컬렉션.



2025 F/W 시즌에 새로 선보인
두퍼 재킷 스타일의 브레타네
재킷, 하이 네크라인의 블루 다운
베스트, 체크 패턴의 개버딘 소재
집업 셔츠, 심플한 브라운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몽클레르 컬렉션.



리사이클 나일론으로 제작해 지속
가능한 패션을 실현한 마야 70 재킷,
부클레 소재의 후드 집업, 울 소재 블랙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몽클레르 컬렉션.



문의 0039-0821-0734

로고 포켓과 탈착 가능한
후드를 겸비한 블랙 컬러의
마야 70 재킷, 부클레 소재의
후드 집업, 브라운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몽클레르 컬렉션.



코균 실루엣이 특징인 베이지
컬러 브레타네 재킷, 블루 컬러의
다운 베스트, 집업 셔츠 모두
가격 미정 몽클레르 컬렉션.

헤어 마준호
메이크업 조혜민
모델 조지(GOST AGENCY)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포토그래퍼 정지은



자연을 더욱 풍요롭게 변형시키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곤충이 있다. 바로 '벌(bee)'이다. 쇼메는 제1제국 시대부터 벌을 모티브로 다양한 주얼리와 하이 주얼리를 제작해왔다. 특히 벌은 나폴레옹이 황실의 상징으로 선택한 모티브이며, 쇼메는 이때부터 나폴레옹과 그 왕비들을 위한 주얼리를 의뢰받아 제작했다. 따라서 쇼메는 프랑스 역사와도 깊은 연연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쇼메는 브랜드가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 2백4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이 고귀한 상징을 새롭게 조명하며 다양한 형태로 탐구하고 발전시켜왔으며, 현재까지도 이 역사 깊은 모티브를 계승하고 있다. 아르데코 시대에는 벌집 모양을 그래픽적 형태로 탐구하기 시작해 '허니콤 모티브'를 탄생시켰으며, 2009년엔 벌과 허니콤을 하나로 결합한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고, 2011년에는 공식적으로 '비 마이 러브(Bee My Love)'라 명명하며 컬렉션 전개의 시작을 알렸다.

2011년 컬렉션으로 처음 출시되었을 때 첫 번째 작품은 웨딩 밴드와 인게이지먼트 링으로 디자인해 선보였다. 연인을 위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컬렉션명 역시 사랑이라는 의미의 '러브(Love)'를 넣어 '비 마이 러브'라 명명했다. 시간이 흐르며 이 컬렉션은 예비부부나 커플을 위한 제품을 넘어 자신을 위한 선물이나 일상에서 착용할 수 있는 데일리 주얼리로 확장되었다. 웨딩 주얼리의 범위를 넘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메종의 아이코닉한 컬렉션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 쇼메는 올해부터 '비 드 쇼메(Bee de Chaumet)'로 컬렉션 명칭을 변경했다. 하지만 여전히 비 드 쇼메 컬렉션은 메종의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만들어내며 벌과 허니콤에서 탄생한 아이코닉한 디자인적 가치를 그대로 유지된다. 하나하나 정교한 세공 과정을 거치는 미려 폴리싱 허니콤 모티브는 그 자체로 상징적이고 자연주의적이며 입체적이다. 미려 폴리싱 처리한 골드와 다이아몬드 세팅은 빛을 잘 담아내고 발산한다. 이렇게 정교하게 디자인한 육각형 허니콤 모티브는 무한히 이어지고 연결되며 더욱 반짝이는 광채를 선사한다. 앞으로 '비 드 쇼메' 컬렉션은 보편적이면서도 독특한 매력으로 사랑과 웨딩에 대한 한계를 넘어 더욱 무한히 확장될 예정이다. 다양한 소재의 골드와 다이아몬드의 믹스 매치를 통해 누구에게나 무한한 스타일 표현의 기회를 선사할 것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컬렉션의 작품을 착용해 개성과 스타일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흥미로운 여정과 함께한 특별하고 고귀한 경험

쇼메는 지난 10월 16일부터 28일까지 '비 드 쇼메' 컬렉션의 의미를 공고히 하고 기념하기 위한 팝업을 진행했다. 파리와 오사카에 이어 한국의 가장 높은 고층 빌딩인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이 특별한 팝업에서는 '비 드 쇼메' 컬렉션의 탄생부터 역사와 하이 주얼리까지 다양한 경험을 선사했다.

Queen of Bee

자연은 2백40년 이상의 세월 동안 하이엔드 주얼리 메종 쇼메의 영감이 되어왔다. 그중 벌(bee)은 오래전부터 쇼메가 해석해온 상징적 모티브다. 쇼메는 이번 한국에서의 팝업 전시를 통해 한번 더 이 아름다운 '비 드 쇼메(Bee de Chaumet)' 컬렉션을 조명한다.



“이번 팝업 스토어가 흥미로운 이유는 '벌'을 통해 쇼메의 역사를 되짚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쇼메는 나폴레옹 1세와 조세핀 황후 시절에 탄생했습니다. '벌'은 프랑스 황실의 상징이었고, 그때부터 저희 쇼메는 벌을 모티브로 한 주얼리를 제작해왔습니다”
-by 쇼메 CEO 찰스 룡

팝업 장소는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를 위해 기획된 설치물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되었다. 한국 전통 장인 정신에 경외감을 표하는 한지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허니콤 셀이 무한히 이어지며 현대적인 허니콤 셀과 같은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놀라움을 자아냈다. 헤리티지 공간에서는 2백45년 역사와 장인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자연주의 주얼리로서 쇼메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프랑스 황실의 상징으로 등장한 벌 모티브가 세월을 거쳐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과거의 헤리티지부터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허니콤 디자인까지, 수 세기에 걸친 벌 모티브의 흥미로운 여정을 따라가보는 공간이었다. 쇼메는 이번 팝업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주얼리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시그니처 쇼메 블루 코드를 지닌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을 롯데 잠실 에비뉴엘 비 드 쇼메 팝업 스토어를 통해 단독 선공개한 것. 이외에도 국내에서 보기 힘든 다양한 하이 주얼리를 전시해 많은 이들에게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문의 02-3213-2149



interview

찰스 룡 (Charles Leung, 쇼메 CEO)

오랜 시간 하이 주얼리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아 2006년에는 쇼메 아시아-태평양 시장에 중점을 두고 메종의 빠른 성장을 도모했으며, 2018년 프레드를 거쳐 작년 1월 다시 쇼메의 CEO로 돌아온 찰스 룡. 과거부터 쇼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 세계 80개 쇼메 부티크의 글로벌 성장 전략을 추진하며 메종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를 만나 새로워진 '비 드 쇼메' 컬렉션과 이번 팝업, 그리고 하이 주얼리의 미래까지,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스타일 조선평보(이하 SC) 한국은 몇 번째 방문인가요? 30번 정도 온 듯합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한국을 오간 지 20년이 되었네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는 한국에 1년에 두세 번씩 왔어요. 나중엔 점차 늘어 1년에 네 번씩 온 적도 있었습니다.

SC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첫인상은 어땠나요?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한국은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것은 매우 추운 날씨와 눈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매우 따뜻했어요. 한국인들은 참 친절하고 친근합니다. 사실 프랑스에서 공부하던 시절부터 한국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따스함을 느꼈지만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과 일하면서 더 실감하게 되었죠. 한국의 찜질방에도 같이 간 적도 있습니다(웃음)

SC 쇼메에 몸담고 있으면서 느낀 점이 궁금합니다. 많은 하이 주얼리 메종이 있고, 이들 모두 장인 정신에 대한 노하우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이 주얼리 브랜드들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쇼메의 장인 정신에서 더 특별한 점은 무엇이라 생각나요? 쇼메는 2백45년이라는 아주 긴 역사를 자랑합니다. 어쩌면 다른 메종들보다 훨씬 오래되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쇼메는 어떻게 하면 주얼리를 잘 만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주얼리를 만들기 위한 많은 도구가 있지만, 쇼메는 오래전부터 쌓아온 노하우 덕분에 수공 기술에 대해 그 어떤 메종보다 더 잘 터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모든 하이 주얼리를 수제작하며, 이 때문에 제작에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한정적인 수량을 만들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SC 쇼메에는 여러 주얼리 컬렉션이 있습니다. 그중 이번 팝업을 진행하는 '비 드 쇼메' 컬렉션은 쇼메에 어떤 존재이자 의미인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비 드 쇼메 컬렉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팝업 스토어가 흥미로운 이유는 '벌'을 통해 쇼메의 역사를 되짚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쇼메는 나폴레옹 1세와 조세핀 황후 시절에 탄생했습니다. 벌은 프랑스 황실의 상징이었고, 그때부터 저희 쇼메 역시 벌을 모티브로 한 주얼리를 제작해왔습니다. 말하자면 쇼메

1 롯데월드타워에서 진행된 비 드 쇼메 팝업 스토어. 한지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허니콤 모티브로 공간을 채우고 다양한 하이 주얼리를 전시했다. 2 이번 팝업을 위해 한국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비 드 쇼메 브레이슬릿. 화이트 골드 소재에 파베 및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된 링에 블루 코드 브레이슬릿을 매치해 완성했다. 3 쇼메의 상징인 벌을 정교하고 생동감 있게 구현한 하이 주얼리. 화이트 골드 소재에 사파이어 및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아베아유(Abeille) 브로치. 4 롯데월드타워에서 진행된 비 드 쇼메 팝업 공간. 5 벌과 허니콤을 모티브로 쇼메에서 제작했던 주얼리와 이를 통한 쇼메와 비 드 쇼메 컬렉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다. 6 쇼메 CEO 찰스 룡.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벌입니다. 팝업 스토어를 방문하면 벌 무늬로 장식한 망토를 걸친 나폴레옹의 초상화와 그를 위해 제작한 벌 모티브의 주얼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디자인 언어이자 핵심인 허니콤 모티브도 곳곳에 등장했죠. 작년 파리 올림픽 메달 디자인에서도 중앙에 육각형 모티브가 자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각형은 허니콤 모양이기도 하지만 프랑스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자국의 지도를 육각 형태로 인식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쇼메는 프랑스의 역사와 문화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 드 쇼메'가 프랑스 황실의 이야기이면서 브랜드의 시초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서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벌은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것처럼 쇼메 역시 태생적으로 자연주의적 주얼리 하우스이며, 자연에 대해 경외를 표하고 있죠. 지금도 자연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나 브랜드적으로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즉 쇼메는 주얼리 메종으로서의 디자인적 정통성과 생태적 사고, 지속 가능한 미래 등 모든 가치를 하나로 아우르는 브랜드이며, 이번 팝업 역시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프로젝트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SC 쇼메는 전 세계 80개 부티크를 운영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문화와 고객의 개성을 어떻게 반영하나요? 또 쇼메가 오늘날의 젊은 세대와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young)'한 정신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늘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죠. 저는 여행 역시 좋아합니다. 여행을 통해 다른 나라나 지역의 문화를 관찰하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곤 합니다. 물론 우리 쇼메는 로컬 팀을 두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지역 출신으로 그곳의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과 일하는 것을 선호하죠. 이런 다양한 경험과 조언을 취합해 각 지역과 나이에 고객의 개성을 파악하고 반영하려고 합니다.

SC 한국 고객의 특징은 무엇이고, 쇼메가 한국 시장을 위해 준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제가 본 한국 고객들은 가장 영하고 트렌디하며 창의적입니다. 4개의 손가락에 링을 착용하고 다양하게 레이어드하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트렌디하고 창의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픈 마인드입니다. 한국 남성은 다른 나라 남성에 비해 주얼리를 더 많이 착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반대로 굉장히 쿨하죠.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진지하고 무거운 주얼리의 관념을 깨고 있습니다. 주얼리를 스타일링과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죠. 이런 모습들은 아직 주얼리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SC 이번 팝업 장소를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점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 건물이 단순한 고층 빌딩 이상이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스타일을 지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은 물론 쇼핑, 만남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죠. 교통 역시 매우 편리합니다. 또 이곳은 젊은 층은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도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이 방문하는 장소라는 점은 저희 '비 드 쇼메' 컬렉션을 다양한 한국 고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다는 아점도 있지만 컬렉션의 정제성과도 일부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이 하나의 거대한 벌집 같을까요? 꿀벌을 끌어들이는 벌집 말이에요(웃음)

SC 앞으로 '럭셔리 주얼리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또 쇼메가 나아고자 하는 궁극적인 방향은 무엇일까요? 더욱 흥미로워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전통적인 주얼리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서 미래에는 주얼리가 퍼스널한 스타일링을 위해 더 많이 사용될 것이며, 웨딩뿐 아니라 생일, 승진 등 일반적인 기념일을 축하하기에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여성 고객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 자신의 남편, 아들, 아버지 등 남자들에게도 선물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될 것이고요. 또 AI가 발전해갈수록 손으로 만드는 주얼리의 가치와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인 정신에 대한 존중도 커질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결국 인간임을 되새기게 하는 가치니까요. 쇼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백45년 동안 명맥을 유지해온 만큼 앞으로 2천5백 년까지, 또는 그보다 더 오랜 세월 우리의 가치를 지가하며 더 많은 국가,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6개월 안에 2개의 추가 부티크 오픈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팝업에서도 같이 쇼메의 장인 정신이 돋보이는 하이 주얼리를 지속적으로 한국 고객들에게 선보일 생각입니다. 에디터 정성민

(위부터 차례대로) **피아제 포제션 데코 펠리스 브레이슬릿** 33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사이에 17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3천3백30만원.
문의 1668-1874 **다올 파인주얼리 마이 다올 브레이슬릿** 옐로 골드와 블랙 래커로 브랜드를 상징하는 카나주 패턴을 구현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부쉐론 콰트로 블랙 라지 बैं글** 화이트 골드와 블랙 PVD, 파베 세팅 다이아몬드, 그리고 다시 화이트 골드를 켜켜이 쌓아 볼드하게 완성했다. 5천만원대. 문의 02-3277-0148 **그라프 로렌스 시그나처 다이아몬드 बैं글** 다양한 주얼리와 매치하기 좋은 구조적 디자인이 특징이며, 옐로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하프 파베 세팅했다. 2천3백8만원. 문의 02-2150-2320 **다미아니 벨 에포크 뿔 브레이슬릿** 옐로 골드의 원과 사각형 모티브를 교차해 역동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가격 미정. 문의 02-515-1924 **프레드 포스텐 하프 파베 다이아몬드 엑스 라지 브레이슬릿** 닳 고리 모티브 버클에 다이아몬드를 부분적으로 파베 세팅한 뒤 화이트 골드 체인 링크를 섬세하게 매치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514-3721 **볼가리 비제로원 브레이슬릿**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영감받은 나선형 디자인이 특징이며, 로즈 골드에 블랙 세라믹을 세팅해 로마의 웅장함을 표현했다. 1천90만원. 문의 02-6105-2120
에디터 김하얀



Wrap a Wrist

남녀라는 성별 이분법을 허물고 최소한의 장식으로 간명하게 완성한 젠더리스 브레이슬릿 7.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에디터 김하얀

Fusion of Tradition

데뷔 쇼를 마친 보테가 베네타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루이스 트로터. 브랜드의 역사와 전통, 현대적 감각, 디자이너의 개인적 취향 사이에서의 외출타기는 성공적이었다.



9월 마지막 주, 2026 S/S 밀라노 패션 위크에서 드디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기대했던 보테가 베네타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루이스 트로터(Louise Trotter)의 첫 쇼가 공개되었다. 많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이 그렇듯 그녀 역시 브랜드의 유산과 본질부터 파악하려 한 듯 보였다. 그녀는 누구보다 더 완벽하고 영민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마치 오래전부터 보테가 베네타에 있었던 듯 여유로운 스타트로 우리를 감동시켰다. 작년 12월 보테가 베네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되었음을 공식 발표한 후부터 베니스와 베네토 지역을 자주 방문해 이탈리아의 색깔과 정서, 유산 등을 자신의 감각에 녹여냈지만, 대략 6개월 만에 유서 깊은 대형 럭셔리 브랜드를 이토록 완벽하게 이해하고 흡수해 자신의 스타일로 해석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먼저 가장 눈에 띄어 위상은 모델이 워킹할 때마다 유려하게 흔들리며 조영에 반짝이는 프린지 디테일이었다.

1 유리공예를 상징하는 글라스 체어와 이광호 작가의 작품이 걸린 쇼장. 2 유리공예로 명성 높은 베니스에서 착안한 반짝이는 프린지 장식이 돋보이는 룩. 3 허리 주름으로 여성의 실루엣에 대한 경의를 표현한 룩. 4 소재에 대한 보테가 베네타만의 노하우를 보여주는 룩. 5 실용성과 스타일리시함을 겸비한 새로운 감각의 베이비 베네타 백. 6 2026 S/S 보테가 베네타 쇼의 피날레.

가까이에서 보면 전통 수공예의 탄생지이자 유리공예로 명성 높은 베니스에서 착안해 적용한 다채로운 재활용 유리섬유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여기에 밀라노의 모던한 건축에서 영감받은 구조적인 실루엣과 미니멀하면서도 풍성한 테일러링, 보테가 베네타가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던 시절, 뉴욕의 에너지를 담은 사이즈의 과감한 변주까지. 이번 컬렉션을 보고 난 뒤에는 마치 보테가 베네타 역사책 한 권을 다 읽은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 그만큼 그녀의 작품 곳곳에는 보테가 베네타가 탄생한 시점으로 되돌아가 치밀하게 브랜드를 답습한 흔적이 역력하다. 한편으로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보테가 베네타를 이끈 첫 여성 크리에이티브 리더 로라 브라지온(Laura Braggion)의 스타일을 오마주하기도 했다. 본인과 같은 여성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에 대한 존경과 상징성을 담은 것이 아닐지.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기라도 하는 듯 여성의 아름다운 신체를 강조하는 디테일을 곳곳에 넣어 한층 여성스러워진 감각으로 새로운 보테가 베네타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대비되는 파워 솔더와 오버사이즈로 현대 여성의 강인함과 당당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핵심이 되는 것은 보테가 베네타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관통하는 대표 가족 워킹 기법인 인트레치아토(Intrecciato)의 소프트 펄서날리티(soft functionality)를 이번 컬렉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쇼장은 물론 의상 곳곳에까지 녹여냈는데, 과거의 9mm와 12mm의 클래식한 워킹 비율을 되살리고, 대신 다양한 기법과 소재, 컬러를 믹스하면서 유연하고 다채롭게 변주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것. 쇼장의 장식 역시 인트레치아토 탄생 50주년을 맞이해 역시 워킹 기법으로 만든 이광호 작가의 거대한 가족 구조물을 곳곳에 설치해 상징성을 공고히 했다.

더불어 액세서리에서도 보테가 베네타의 역사를 엿볼 수 있었다. 1980년 개봉한 영화 〈아메리칸 지골(American Gigolo)〉에서 보테가 베네타의 가족 클러치를 들고 등장해 브랜드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한 로렌 허튼(Lauren Hutton)에게 경의를 표하며 로렌(Lauren) 백을 새로운 비율로 재탄생시켰다. 가족 워킹의 상징인 노트(knot)에는 한층 유연한 구조를 더했다. 까바(Caba)는 깃아웃을 통해 클러치로 변형되었다. 특히 까바의 삼각형 구조는 인체 공학적 비율까지 고려한 듯하다. 가방을 드는 방식만으로 룩의 솔더라인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된 것. 이러한 디자인의 변주와 기법의 확장은 스쿼시(Squash), 롱 프레임드 토트(Framed Tote), 크래프트 바스켓(Crafty Basket) 같은 새로운 스타일로 이어지며 장인 정신의 정수를 보여준다. 여기에 루이스가 재해석한 베네타 백 역시 빼놓을 수 없다. 토마스 마이어 시절 하우스의 아이콘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베네타 백을 현대적으로 재탄생시킨 것. 부드럽고 둥근 형태의 호보 세이프가 특징이며, 인트레치아토 워킹 기법을 사용해 가족의 세련미를 부각한다. 특히 미니 사이즈의 베이비 베네타 백은 처음 공개되는 것. 모두 11월 한국에 출시되며, 베이비 베네타 백은 여름 컬렉션 때 만나볼 수 있다. 한편 2026년, 보테가 베네타는 브랜드 창립 60주년을 맞이한다. 이를 기념해 루이스 트로터는 영국 아티스트이자 아카데미상 수상 감독인 스티브 맥퀸(Steve McQueen)과 협업해 쇼의 사운드트랙 '66-76을 완성했다. 니나 시몬(Nina Simone)과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가 각각 부른 'Wild is the Wind'를 재구성한 음악으로 두 목소리가 하나의 '듀엣(duet)'처럼 엮인다는 점에서 청각적 인트레치아토를 담았다. 보테가 베네타와 함께할 그녀의 다음 챌린지가 더 기대된다. 문의 02-3438-7694 에디터 **성정민**



Volkswagen Touareg — heritage in every line

The Essence of Hidden Luxury

과시하지 않아도 존재는 스스로 드러난다.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본질의 깊이를 중시하는 사람들, 그들은 무엇이 오래 남는 가치인지 알고 있다.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SUV 투아렉(Touareg)은 그들의 철학과 닮았다. 힘은 단단하지만 요란하지 않고, 존재는 우아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다. 투아렉이 말하는 럭셔리란 단순히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증명되는 것. 그 철학을 일상 속에서 함께 실현해 온 여섯 명의 투아렉 오너들이 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말하는 히든 럭셔리의 본질이 펼쳐진다. PHOTOGRAPHED BY **LEE JONGIL**

투아렉을 선택한 이들은 저마다의 이유를 지니고 있다. 누군가는 안정적인 주행감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다른 이는 가족과의 긴 여정을 위해 그 신뢰를 선택한다. 어떤 이는 일상과 여행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차 안에서 오롯이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다. 목적은 다르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완벽함보다는 균형을, 속도보다는 신뢰를, 과시보다는 본질을 택한다는 것. 투아렉은 그들의 삶 속에서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자신만의 리듬을 지켜주는 공간이다. 그들에게 투아렉은 조용하지만 확고한 자신감의 상징이다. 힘은 언제나 단단하지만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고, 감정은 절제되어 있지만 결코 차갑지 않다. 오너들은 투아렉을 통해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 그것은 스포츠보다 경험의 깊이를 중시하는 태도이며, 빠른 변화보다 꾸준한 신뢰를 쌓는 방식이다. 절제된 디자인, 정교한 기술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품격 속에서 그들은 자신만

“
화려함을 떨어낼수록
본질은 선명해진다.
그 미니멀한 자신감이
투아렉의 힘이다.”

의 밸런스를 찾아간다. 투아렉 오너들의 이야기는 결국 한 방향으로 모인다. 진짜 럭셔리란 화려한 표현 속에 있지 않는 것. 조용한 자신감, 신뢰로 완성된 균형, 그리고 세월을 견디는 품격. 그것이 바로 투아렉이 지향하는 가치이며,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든 철학이다. 그 길 위에서 투아렉은 단순한 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신념을 담은 공간이 된다. 그리고 오늘, 여섯 명의 오너들이 그 균형의 이야기를 이어간다. 에디터 황해운(프리랜스)



Q. 가족의 안전을 위해 투아렉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떤 순간에 가장 빛을 발하나요?
가족들이 탈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차예요. 앞좌석뿐 아니라 뒷좌석의 승차감도 좋아서 아이들과 함께 타는 아내의 만족감이 특히 큼니다. 주행할 때 날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도 큰 장점이예요. 가족과 주말 장거리 여행을 갔을 때, 폭설이나 폭우 속에서도 늘 안정적으로 길을 빠져나왔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안전하구나' 싶고, 요란하게 드러내지 않아도 진짜 강한 차라는 걸 느끼죠. 앞으로 아이가 조금 더 크면 투아렉을 타고 산길을 따라 오프로드 주행을 즐기거나 가족들과 함께 캠핑, 차박을 해보고 싶어요. 투아렉이라면 그 모든 순간을 든든하고 안전하게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_장지유 (변호사, 2023년형 투아렉 오너)



Six Voices, One Philosophy

Q.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차를 고를 때 확실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남들과 같은 선택보다는 나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차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투아렉을 알게 됐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마음이 갔어요. 주변에서도 '한 번 타보면 안다'며 적극 추천했죠. 정말 타보니까 이전에 운행했던 차들과 확실히 달랐어요. 주행감, 안정감, 그리고 안에서 느껴지는 단단함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투아렉에 대한 애정은 더 깊어져요. 저에게 투아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내 선택의 기준을 보여주는 상징 같은 존재예요.

_한혜미 (플랜트 B2B 영업 매니저, 2021년형 투아렉 오너)



Q. 한 번 타보면 투아렉의 진가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투아렉은 뛰어난 주행 질감과 탄탄한 힘, 안정성 등 장점이 많아요. 하지만 진짜 매력은 동급 차량 대비 훨씬 다양한 기능을 품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코, 컴포트, 노멀, 스포츠, 윈터, 오프로드 등 드라이빙 프로파일 셀렉션을 이해하는 순간, 투아렉의 매력은 두 배로 커집니다. 각 모드마다 주행 감각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 차이를 느끼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이 기능들을 잘 알면 도심 속 실생활에서도 정말 유용해요. 울 휠 스티어링 덕분에 회전 반경이 좁아 U턴이 훨씬 쉽고, 좁은 골목 주행이나 주차할 때도 걱정이 없죠. 그래서 저는 투아렉의 진짜 매력은 그 기술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투아렉의 세계는 알고 타는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_소태수 ((주)루키스 대표이사, 2025년형 투아렉 오너)



Q. 투아렉은 '히든 럭셔리'의 대명사라 불리죠.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럭셔리'란 무엇인가요?
럭셔리에는 반드시 시간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명품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저도 폭스바겐의 골프, 티구안을 거쳐 투아렉까지 타면서 저와 가족의 이야기를 쌓아가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태어나 자랐고, 남편과 수많은 추억을 만들었죠. 언제나 안전했고, 늘 믿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투아렉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삶의 시간을 함께 견뎌준 존재예요. 그 안에 내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요. 결국 저에게 럭셔리란, 인생의 스토리가 녹아 있는 진짜 나만의 가치예요.
_정정현 (마케팅 에이전시 본부장, 2009년형 투아렉 오너)



"보여주지 않아도 느껴지는 품격, 그 조용한 힘이 바로 투아렉의 언어다."



Q. 투아렉의 주행은 '묵직하지만 날렵하다'는 평가를 받죠. 실제로 체감한 투아렉의 퍼포먼스는 어떤가요?
저는 이것저것 싼고 다니는 걸 좋아해서 늘 크고 적재공간이 넉넉한 SUV를 선호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차체가 크면 주행의 맛이 없지 않냐'고들 묻죠. 하지만 투아렉을 타보면서 가장 놀랐던 건 주행감과 엔진 출력이에요. 강력한 토크에서 발휘되는 치고 나가는 힘이 좋고, 스피드를 즐길 때는 차체가 흔들리지 않아 안정적이에요.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면 스포츠카 못지 않은 퍼포먼스를 발휘하죠. 고속 주행 중에도 승차감이 부드럽고 안정적이라 체감 속도보다 실제 속도가 훨씬 높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심해야 할 정도예요. 묵직하면서도 날렵하게 뺏어 나간다는 표현이 정확히 투아렉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이 차의 진짜 매력입니다.
_고재용 (컴인웍시 수원오피스 대표, 2025년형 투아렉 오너)



Q. 투아렉 오너로서 내가 생각하는 히든 럭셔리는 어떤 가치인가요?
남의 시선을 끌지 않아도,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기능을 모두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럭셔리라고 생각해요. 투아렉이 바로 그런 차예요. 겉으로 과시하지 않아도 실제로 운전해보면 느껴지는 만족감이 크죠. 특히 다양한 기능을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지방 국도를 달릴 일이 많은데, 한번은 폭우로 도로가 물에 살짝 잠긴 적이 있어요. 그때 에어 서스펜션으로 차체를 최고로 높이고 천천히 빠져나왔던 경험이 있어요. 이 가격대에 이런 기능을 갖춘 SUV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보여지는 화려함보다 훨씬 가치 있는 럭셔리라고 생각해요.
_안덕형 (산경외과 전문의, 2024년형 투아렉 오너)



FUR, SURE!

웬지 기다려지는 이번 겨울, 감각적인 겨울 스타일, 퍼(fur)의 재구성. PHOTOGRAPHED BY JUNG JIEUN



시아링 재킷, 스카이 블루 포플린 셔츠, 해링본 울 쇼츠, 앤타크 레더 펌프스 모두 가격 미정 **프라다**.



화이트 시어링 슬리브리스 코트,
레더 재킷, 스웨이드 부츠 모두
가격 미정 **릭 오웬스**. 바건다 실크
드레스 가격 미정 **페라기모**.

오버 핏의 시어링 코트 2천1백12만원
토즈, 그레이 재킷, 니트 톱, 레깅스
모두 가격 미정 **막스마라**. 그레이 니트
스커트 가격 미정 **릭 오웬스**. 판테아
펌프스 가격 미정 **발렌티노 가라바니**.
라운드 후프 이어링 21만원 **그레이엘런**.



브라운 도르사토 시어링 재킷
1천8백만원대 **켄디**. 브라운 실크 톱,
스커트 모두 가격 미정 **미우미우**.

소프트 시어링 피코트
2천3백50만원, 플로라 레이스
털 보다수트 3백60만원,
씨드 울 스커트 1백95만원
모두 꾸찌. 버클 장식 나파 레더
부츠 가격 미정 미우미우.



인감 퍼 디테일의 레더 코트
1천7백80만원, 레이스 보다수트
1백86만원, 왁스 파이유 팬츠
2백66만원 모두 **통체엔가바나**. 클로우
드롭 이어링 27만원 그레이엘린.



모헤어 알파카 레오파드 코트 1천50만원,
스트라이프 터틀넥 1백70만원, 하리에
룩은 팬츠 1백95만원 모두 **셀린느**.

시아링 코트 2천2백만원, 다크 퍼지 &
베이지 울 스웨터 2백65만원, 네크라인
레이스 블라우스 가격 미정, 나뽀 버튼
위브 팬츠 2백80만원 모두 **발렌티노**.
퍼 글러브 가격 미정, 스노위시
퍼 앵글부츠 3백27만원 모두
발렌티노 가라바니.

헤어 김유준
메이크업 조해민
모델 정소현(GOST Agency)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돌체앤가바나 02-3442-6888
그레이엘린 010-8815-8467
릭 오웬스 02-3479-1353
페라가모 02-3430-7854
셀린느 1577-8841
토즈 02-3438-6008
막스마라 02-511-3935
발렌티노, 발렌티노 가라바니 02-2015-4655
구찌 02-3452-1921
미우미우 02-541-7443
프라다 02-3442-1831
펜디 02-544-1925

Get

The

List



OMEGA
브랜드를 대표하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150M, 지름 30mm 케이스에
오묘한 그라데이션 효과를 준 그레이 다이얼을
매치하고, 베젤과 인덱스에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세련되고 우아한 느낌을 준다.
1천8백만원대 **오메가**, 문의 02-6905-3301



DIOR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조나단 앤다스이 부임하자마자
첫선을 보인 2026 크루즈 시즌의
백으로 그만의 세련된 디테일과
실루엣이 돋보인다. 디올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모티브를 재해석한 플랫
매크로까나쥬 스타칭을 더한 카프
스킨 소재의 디올 보아지 백 가격
미정 **디올**, 문의 02-3280-010



LOUIS VUITTON
2000년대 감성에서 영감받은
빈티지한 디자인에 미래적인
모노그램 미르와 캔버스 소재를
결합해 개성 있게 완성한 알마
트래블 백, 앞쪽의 포켓 디테일로
휴대성을 높였다. 9백15만원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SAINT LAURENT BY
ANTHONY VACCARELLO**
팔에 끼워 손에 쥐듯이 연출하는 호보
백 스타일로 실용성과 스타일리시함을
겸비한 이카리노(ICARINO) 백, 부드러운
나파 소재에 퀘팅 디테일로 스크래치에
대한 염려를 줄였다. 가격 미정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문의 02-6105-2228



FRED
운명의 매듭을 상징하는
리본에서 영감받은 아이코닉한
상소 인피니 컬렉션의 새로운
이어링. 18K 핑크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하고
중앙에 페어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찬란한 광채와 우아함을
선사한다. 1천9백10만원
프레드, 문의 02-514-3721



MONCLER
가벼운 마이크로 린스를 소재의
다운 패딩으로 기하학적인 퀘팅
디테일을 더해 스타일리시한
연출과 따뜻한 보온성을 두루
갖춘 롬비(Lombi) 후드 미디 길이
다운 재킷 3백93만원 **몽클레르**,
문의 0030-8321-0794



GRAFF
섬세하고 디테일한 세공 기술을
엿볼 수 있는 리본 모티브로
완성한 대표 컬렉션의 링, 총 2.02
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2.17캐럿의 블루 사파이어로
포인트를 더한 그라프 필라의 보우
컬렉션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
멀티세이프 링 6천3백76만원
그라프, 문의 02-310-1320



ROLEX
오이스터 퍼페추얼 컬렉션을
확장시키는 새로운 워치 랜드-
드웰러. 독특한 클루티드 베젤과
하니콤 모티브의 독창적인 다이얼이
특징이다. 다양한 베리에이션 중 18K
에버로즈 골드 소재의 지름 40mm
케이스에 플랫 주빌리 브레이슬릿으로
완성한 랜드-드웰러 40 레퍼런스
127335 가격 미정 **롤렉스**,
문의 02-545-4855 **에디터 성정민**

Urban Codes

낮고 편하고 쿨하다. 빈티지 어번 감성을 한 스폰 더한 요즘 스니커즈 스타일.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위부터 차례대로) 브라운 컬러와 은은한 워싱으로 빈티지한 스니커즈 감성을 부여한 버클 장식 가죽 스니커즈 가격 미정 **미우미우**.
문의 02-541-7443, 블랙에 메탈릭 실버 스타 디테일로 포인트를 준 마라톤 스니커즈 80만8천원 **골든구스**. 문의 02-519-2937.
퓨어한 화이트 레더가 돋보이며 탈착 가능한 덮개 장식으로 개성을 불어넣은 클래식한 스타일의 T-마라톤 스니커즈 1백23만원
토즈. 문의 02-3438-6008. 브랜드만의 워트 있고 독특한 셰이프가 개성 있는 록 연출을 돕는다. 나일론과 카프 스킨으로
완성한 발레 러너 2.0 가격 미정 **로에베**. 문의 02-3479-1785. 양가죽과 스웨이드 송아지가죽의 조합으로 편안하면서도 발레리나
플랫의 가벼움을 동시에 갖춘 혁신적 디자인의 LV 스니커리나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반스와의 컬래버레이션으로
탄생한 스니커즈로 편안한 보더 슈즈 디자인에 발렌티노 특유의 V 로고 체크보드를 더해 완성한 페브리크 로우탑 스니커즈 62만원
발렌티노 가라바니x반스. 문의 02-2015-4655 에디터 **성정민**



양가죽과
캐시미어의
섬세한 짜임으로
완성한 크로세
글러브
1백18만원
아노나.

메탈릭 양가죽 소재 시그니처
발레리나 플랫 1백59만원 **랑방**.

프레스트 시어링 소재로 매서운 추위에도
고백없는 플랫 탑 햇 1백18만원 **아노나**.

와이드 리본과 세로 패의 윈드 소재 토로스트라인 코트 3천8백59만원 **가브리엘라 하스트**

최고급 캐시미어 블렌드
남성 케이블 카디건
2백88만원 **아노나**.

남캐주얼 정한는 페를을
조절할 수 있는 울
소재로 장미의 양가죽
소재 캐시미어 블렌드
하스트
6백29만원 **가브리엘라**

Winter Wishlist

최고급 소재와 절제된 컬러, 무엇보다 단정하고 깔끔한 디테일로
완성해 조용한 럭셔리를 보여주는 겨울 데일리 룩.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멋과 보온성을
모두 겸비한 벨벳
시어링 베이스볼 캡
98만원 **아노나**.

자카드 디테일이 색다른 멋을 전하는 캐시미어
알파카 크루넥 니트 2백78만원 **아노나**.

주얼 장식의 핸들과 클로저가
특징인 송아지가죽 미디엄
버킷 백 4백29만원 **랑방**.

100% 울 소재가 발을 부드럽게 감싸 착용감이
좋은 스노 부츠 1백78만원 **아노나**.

따뜻한 파스텔 톤의 시어링 소재와
캐시미어가 만난 톤온톤 1천5백
97만원 **가브리엘라 하스트**

캐시미어 시어링 소재의 퍼 베스트 9백50만원 **아노나**.

가브리엘라 하스트 02-3438-6132 **랑방** 02-3438-6186 **아노나** 02-3449-5942

Check, Check!

올가를 멋쟁이라면 꼭 하나 구비해두어야 하는 트렌디 체크 셀렉션. PHOTOGRAPHED BY YOON JIYOUNG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비비드한 컬러 조합의 체크 패턴으로 록에 포인트를 준 체크 블루종 재킷 가격 미정 **미우미우**. 문의 02-541-7443, 큰 체크 패턴으로 위트를 더한 울 타이 70만원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그린 컬러에 아이코닉한 체크 모티프를 가미한 홀스슈 크로스 보디 백 1백59만원 **버버리**. 문의 080-700-8800, 퍼플 체크에 로고 포인트로 완성한 테디베어 키 링 48만원 **비비안 웨스트우드**. 문의 02-3015-6464



(왼쪽부터) 바닐라, 베이지, 라벤더 같은 은은한 컬러로 완성한 울 소재 모헤어 체크 스카프 51만원 **아크네 스튜디오**. 문의 02-3479-6249, 그레이 체크로 웨어러블하면서도 캐주얼한 감성을 전하는 스카이 블루 컬러 드레이프 재킷 가격 미정 **로에베**. 문의 02-3479-17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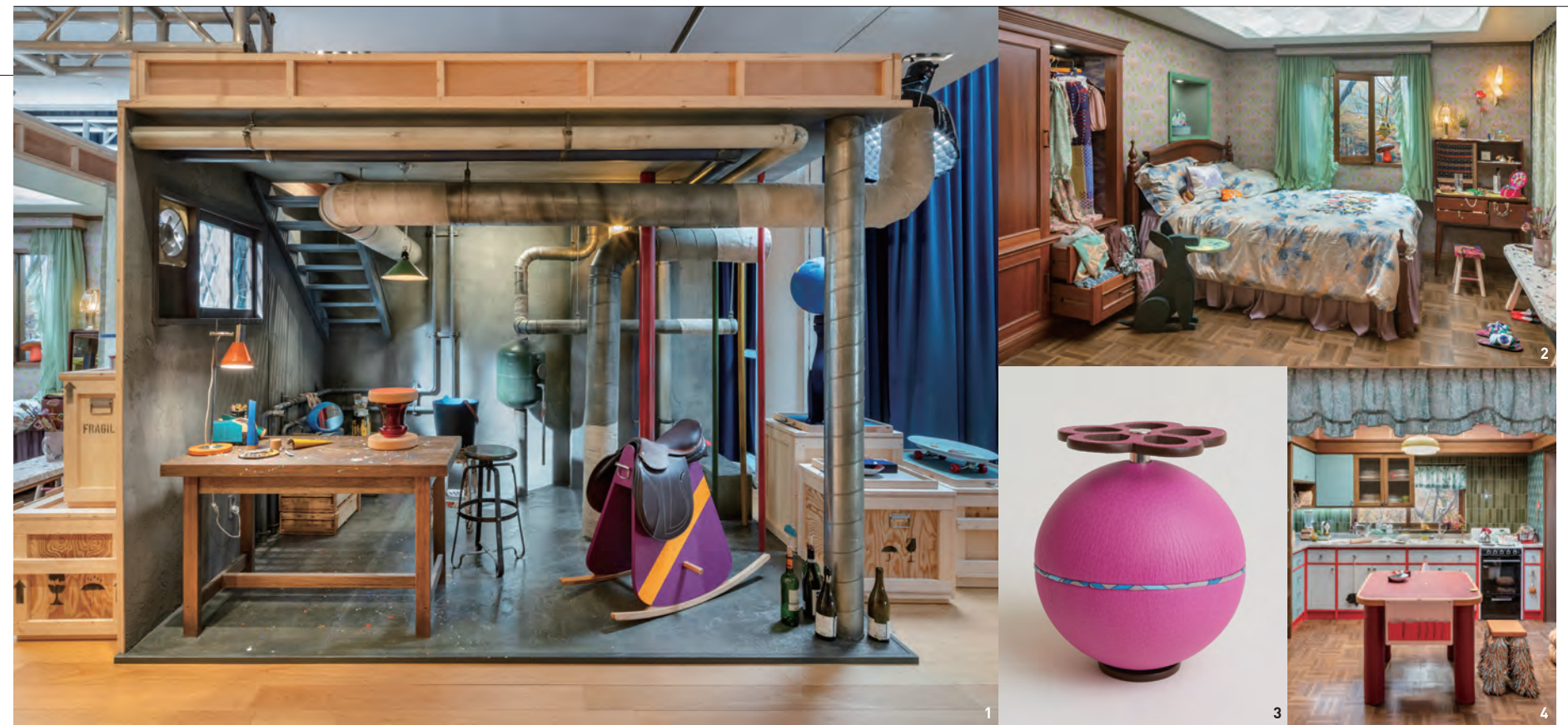


(위부터) 정직한 체크 패턴으로 클래식한 아담 록을 완성해줄 캐시미어 소재 헛 93만원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옐로 브라운 계열의 컬러와 체크가 스타일리시하며 가을 무드를 연출하도록 돕는 남성 블러리 울 체크 존 파자마 팬츠 2백15만원 **셀린**. 문의 1577-8841, 체크와 연출하기 좋은 스트라이프 코트 소재 카산드라 셔츠 가격 미정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문의 02-549-5741



(위부터) 따뜻한 울 소재에 체크 패턴을 가미한 트위드 재킷 6백30만원 **발렌티노**. 문의 02-2015-4655, 2025 코코 네쥬 컬렉션의 백으로 트위드 시어링 소재가 따뜻한 감성을 전하는 클래식한 라지 플랩 백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화이트에 레드 체크 포인트를 주고 V 로고로 위트를 더한 미니스커트 2백80만원 **발렌티노**. 문의 02-2015-4655 **에디터 성정민**

마네킹 스타일링



Spirit of Petit h

장인 정신과 예술적 상상력이 만나 새 생명을 부여하는 마법의 공방. '버려지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이 재창조되면서 새로운 오브제가 탄생한다'는 에르메스의 뽀띠 아쉬 공방으로 초대한다.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늘 유쾌한 감성을 전달하는 에르메스에는 특별한 공방이 있다. 창조의 자유, 혁신의 정신, 보다 아름다운 소재에 대한 지속적 탐구, 우수한 노하우 전수 및 기능적 미학 등 에르메스의 가치와 철학을 담은 16개의 공방 중 가장 창의적이고 독특한 에너지를 품고 있는 곳, 뽀띠 아쉬(Petit h)다. 2010년 파스칼 뭉사르(Pascal Mussard)가 탄생시키고 현재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고드프루아 드 비리외(Godefroy de Vireux)가 이끄는 이 공방의 정체는 '재탄생'이라는 단어로 귀결된다. 마치 새 생명을 불어넣듯 다른 공방에서 사용하던 재료로 새로운 오브제를 탄생시키는 것. 뽀띠 아쉬는 파리 외곽 팡탱(Pantin)에 위치한 자체 보관실에서 시작되었다. 실크와 가죽, 페브릭, 포슬린, 크리스털, 금속 부품 등 에르메스의 여러 메티에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소재가 이곳으로 보내진다. 색상, 톤, 질감 모두 각양각색인 소재가 높은 선반에 보관되어 있다. 아티스트와 장인은 이 소재를 만지고, 펼치고, 살펴보고, 또 서로 조립해보며 색다른 조합을 시도한다. 그 결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재가 만나 새로운 오브제로 재탄생한다. 이 대담한 접근 방식을 통해 사용하지 않은 소재, 장인의 손길, 아티스트의 비전 등 세 가지 요소가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이러한 방식은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화로운 오브제를 만들어내며, 아티스트와 장인이 힘을 모아 완벽한 오브제가 완성될 때까지 함께 작업한다. 이러한 창의적 작업은 즐겁고도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며, 일상의 오브제에 특별하고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입혀 한정 수량 또는 유일무이한 제품으로 선보인다. 뽀띠 아쉬는 지난 몇 년간 새로운 메티에와의 만남에 늘 마음을 열어두었다. 아티스트, 디자이너, 장인은 탐구를 통해 에르메스에서 한번도 사용해본 적 없는 새로운 기법에 도전하고, 16개 메티에가 보유한 뛰어난 노하우와 결합했다. 여러 에르메스 테이블웨어의 조각으로 모자이크를 만들어 완성한 포슬린 소재의 탁자부터 켈리 백 손잡이가 달린 카라프 물병과 크리스털 마개, 여행 가방의 가죽 손잡이가 달린 도기 병 등 유리와 가죽 메티에를 점토와 결합해 의외의 오브제를 만든 사례도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놀랍고 창의적인 작품이 탄생할지 기다려진다.

파리에서 세계로, 그리고 한국으로

뽀띠 아쉬는 매년 2개의 나라로 여행을 떠난다. 그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소재'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해 명확한 기능을 갖춘 특별한 오브제를 제작하는 뽀띠 아쉬를 이해하고, 그 감성을 공유하는 현지 아티스트들과 조우하며 창의성을 확장하고 여행을 이어간다. 국가별로 다른 문화적 환경은 창의력을 자극하는 동력이 되며, 각국의 전통적 요소를 보여주기 위해 현지 설치 디자이너와 협력해 컬렉션을 선보인다. 방문 국가에서 직접 영감받아 오브제를 만들어 선보이기도 하는데, 두바이에서는 매 모터브로 장식한 스탠드와 인센스 홀더, 방콕에서는 실크 소재의 해먹, 베이징에서는 용 형태의 책장 등을 선보인 바 있다.

그리고 10월 23일부터 11월 9일까지 서울 에르메스 메종 도산에서 뽀띠 아쉬가 전시된다. 전

1 류성희 감독이 뽀띠 아쉬의 창작물을 활용해 연출한 전시 공간. © Kyungsub Shin
2 마치 영화 세트장같이 연출된 공간과 그곳에 주인공으로 녹아든 뽀띠 아쉬 오브제들. © Kyungsub Shin
3 가족 소재의 뮤직 박스 (Music box in leather). © Eugenia Sierko
4 작은 가정집 부엌처럼 연출한 전시 공간. 테이블과 의자 등 곳곳에 뽀띠 아쉬의 창작물이 전시되어 있다. © Kyungsub Shin
5 라탄 스트랩, 단풍나무 원목, 카프 스킨 가죽 소재의 헛 데스크. © Eugenia Sierko
6 자신들이 창조한 전시 공간에 앉아 있는 아트 디렉터 류성희 감독과 뽀띠 아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고드프루아 드 비리외. © Kyungsub Shin

시 방식 역시 창의성 그 자체다. 이를 위해 아트 디렉터 류성희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그 아래 서울 에르메스 메종 도산은 하나의 촬영장으로 재탄생한다. 감독은 뽀띠 아쉬의 창작물을 세심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세계에 자연스럽게 녹여낸다. 무대 위 오브제는 저마다의 역할을 담당하며, 장난기 가득한 시나리오 속 배우가 되고, 침실에서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장면에서 무대는 일상 속 이야기를 들려준다. 출연진은 뽀띠 아쉬에서 만든 오브제들이다. 텐트 미러, 조각보 선반, 그리고 한국 해녀의 모습을 표현한 레터 마크트리 수납 버킷 등은 모두 뽀띠 아쉬가 창의적으로 해석한 주연이다. 각 공방에서 선별한 고귀한 재료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번 전시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으니, 누구나 무한한 생명력을 얻은 오브제가 선사하는 생생한 감동을 느껴보길 바란다. 문의 02-542-6622

에디터 성정민





프라다 뷰티 바나나 립밤 패션 하우스의 바나나 패턴에서 영감받아 탄생했다. 골드 마이크로 펄이 촉촉하게 감싸니 입술은 물론 글로가 필요한 볼, 눈가에 사용해 보습과 광채를 더해볼 것. 3.8g 6만원. 문의 080-835-0097 _by 에디터 김하얀



나스 코스믹 라이트 라플렉팅 세럼 쿼션 파운데이션 케이스 2025 대출링 홀리데이 컬렉션 제품으로 라벤더빛 홀로그램 디자인이 돋보이는 한정판 케이스. 라펠 11g 5만5천원대, 케이스 2만8천원대. 문의 080-564-7700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FRESH MOMENT

르 라보 린스-프리 핸드 젤 바질 향 세티타이저 특유의 건조함 없이 촉촉하게 마무리되며 산뜻한 바질 향이 기분 전환 효과까지 선사한다. 55ml 2만6천원. 문의 1544-1345 _by 에디터 성정임

폴레드뽀 보떼 드림즈 익스프레스 컬렉션 라 크렘즈 피부 분연의 컨디션을 회복시켜주는 안티에이징 크림. 30ml 73만원대.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산정임



라부르켓 윈터파인 캔들 이름처럼 눈 쌓인 겨울 소나무 숲을 연상시키는 향. 그린 파키지는 크리스마스 테이블에 안성맞춤일 듯. 260g 11만9천원. 문의 1644-4490 _by 에디터 성정임



크리스찬 디올 뷰티 디올 베르니 골드 서커스 #124 로즈 골드 컬러의 미세한 펄이 은은하게 반짝인다. 시럽처럼 묽은 제형이지만 여러 번 덧바르면 펄과 컬러, 지속력이 배가된다. 10ml 4만8천원. 문의 080-342-9500 _by 에디터 김하얀

NEW PERFUME

조 말론 런던 샌달우드 앤 스파이스 애플리콧 코롱 따뜻한 스파이시한 향을 시작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샌달우드와 바닐라의 진향이 은은하게 감싸안는다. 100ml 25만1천원. 문의 1644-3753 _by 에디터 산정임



보dana 글래어 스타일러 폴드 가볍고 콤팩트한 폴드 디자인으로, 한 세트에 컨센트레이트, 플라이어웨이, 칼링, 뿌리 볼륨 등 네 가지 노즐이 들어 있어 다양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다. 24만9천원. 문의 1522-3665 _by 에디터 산정임



지방시 뷰티 프리즘 리브르 하이라이터 N17 콧대, 눈썹 뼈 등 얼굴의 윤곽선을 살리고 싶다면 내장된 퍼프로 쓸어주기만 하면 끝. 6g 7만5천원. 문의 080-801-9500 _by 에디터 김하얀



글루타넥스 글로우밤 글루타치온과 3종 히알루론산을 함유해 번들거림 없는 산뜻한 광채 피부를 손쉽게 연출할 수 있다. 10g 2만8천원대. 문의 02-2658-2408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Editor's Pick

새로운 향수와 캔들, 피부에 깊은 보습을 전하는 크림, 은은한 컬러로 마무리하는 메이크업 아이템까지. 지금 주목해야 할 이달의 뷰티 리스트. PHOTOGRAPHED BY YOON JI YOUNG

NEW CLEANSER

Show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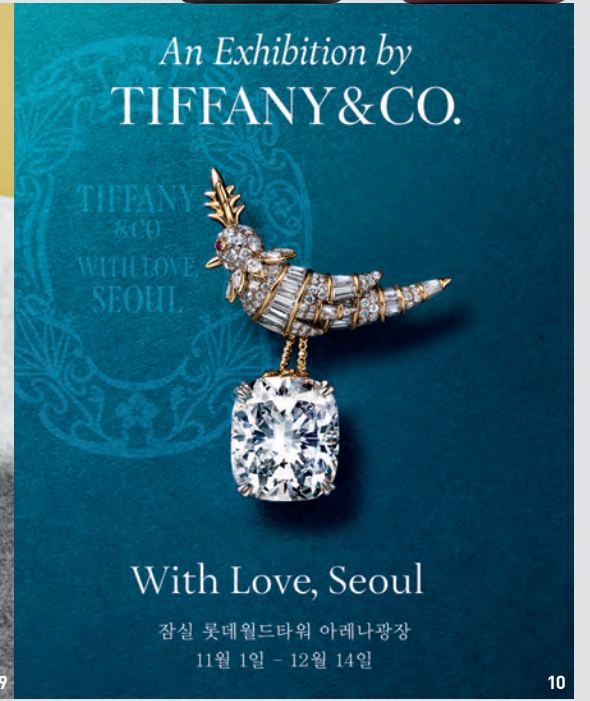
1 **에르메스 라티튜드 30 앵글부츠** 에르메스에서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해 '라티튜드 30' 앵글부츠를 제안한다. 애프터 스키 부츠를 모티브로 제작했으며, 아이코닉 행잉 키 커버 디테일을 더해 여성스럽고 은은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크레이프 효과의 TPU 소재 밑창을 사용해 가벼운 착용감을 자랑한다. 문의 02- 542-6622

2 **폭스바겐 투아렉** 폭스바겐에서 투아렉(Touareg)을 제안한다. 기존 3세대 모델을 부분 변경해 출시했다. 브랜드 최초로 지능형 라이팅 시스템 'IQ. 라이트 H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를 적용해 3만8천개 이상의 인터랙티브 LED가 주행속도, 내비게이션, GPS 등의 정보를 종합해 이전 시스템보다 더욱 최적화된 조명을 제공해 다양한 야간 주행 상황에서 도 낮처럼 어려움 없이 운전 가능하다. 문의 080-767-0089

3 **셀린느 셀린느 핸드크림** 셀린느에서 베스 & 보디라인의 신제품으로 셀린느 핸드크림을 출시했다. '파라드', '라베뉴', '렘탈', '코롱 셀레스트', 4종으로 구성했고 천연 유래 성분 95%와 히알루론산 등을 담아 부드러운 텍스처로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어 번들거림이나 끈적임 없는 마무리감이 특징이다. 문의 1577-8841

4 **그라프 '틸다의 보우' 컬렉션** 영국 주얼리 브랜드 그라프에서 창립자 로렌스 그라프의 손녀를 향한 사랑을 모티브로 제작한 '틸다의 보우' 컬렉션을 선보였다. 파베 세팅 다이아몬드로 보우의 고리와 곡선을 음영과 깊이감을 더해 생동감 넘치게 표현했다. 문의 02-2256-6810

5 **샤넬 뷰티 홀리데이 메이크업 컬렉션** 샤넬 뷰티에서 홀리데이 메이크업 컬렉션을 출시했다. 샤넬을 대표하는 5가지 심벌인 사자, 까멜리아, 꼬메트, 밀, 진주 디자인을 새긴 아이섀도 '레 까트르 옹브르 97 뉴 아스트랄'과 새틴 피니시로 은은한 광채와 생기를 더해주는 일루미네이팅 파우더 '듀오



레 사인 드 샤넬 998 퍼치 쿼미에르' 등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80-805-9638

6 **시몬스 블랙 시몬스 데이**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에서 연중 최대 쇼핑 성수기인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을 앞두고 다양한 혜택을 담은 '블랙 시몬스 데이(BLACK SIMMONS DAY)'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 뷰티리스트부터 뷰티리스트 블랙까지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침대 구매 고객 전원에게 프리미엄 배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문의 1899-8182

7 **쇼메 비 드 쇼메 x 롯데 잠실 에비뉴엘 팝업 스토어** 파리자영 하이 주얼리 쇼메의 아이코닉한 '비 드 쇼메(Bee de Chaumet)' 컬렉션을 기념하기 위해 롯데 잠실 에비뉴엘에서 10월 16일부터 28일까지 비 드 쇼메 팝업을 진행했다. 이번 팝업은 한국 전통 장인 정신에 경외감을 표해 한지로 제작한 허니콤 셀이 무한히 이어지는 공간으로 구성했으며, 화이트 골드 '비 드 쇼메 코드 브레이슬릿'도 단독 선공개했다. 문의 02-3213-2149

8 **로로피아나 니를 백** 이탈리아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로로피아나에서 니를 백을 출시했다. 입체적인 유광 금속 잠금장치, LP 이나셀이 각인된 지퍼, 빈티지 가죽 카를터 등 메종의 시그니처 디테일을 더했다. 미디엄, 스몰, 27지 사이즈로 선보였으며 블루 네이비, 포실, 아몬드, 퍼시몬, 무어랜드 등 다양한 컬러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문의 02-6200-7799

9 **로에베 2026 S/S 여성 런웨이 쇼** 로에베에서 잭 맥콜로(Jack McCollough)와 라자로 에르난데스(Lazaro Hernandez)가 2026 S/S 런웨이 쇼를 선보였다. 이번 컬렉션에서는 스포츠웨어를 모티브로 파카, 아노락, 탱크 톱 등을 재해석했으며, 강렬한 채도의 포인트 컬러와 우아한 실루엣이 특징이다. 문의 02-3479-1785



10 **티파니 <With Love, Seoul> 전시 개최** 1백88년의 역사를 지닌 하이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에서 잠실 롯데월드타워 아레나광장에서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브랜드 전시 <With Love, Seoul>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티파니 아카이브에서 엄선한 60여 점의 작품과 하이 주얼리를 통해 창립자 찰스 루이스 티파니(Charles Lewis Tiffany), 전설적인 주얼리 디자이너 잔 슐럼버제(Jean Schlumberger) 등 하우스를 상징하는 인물들의 창의성과 유산을 조명한다. 문의 1670-1837



* 상영관(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110대, 120대, 130대, 140대, 150대, 160대, 170대, 180대, 190대, 200대, 210대, 220대, 230대, 240대, 250대, 260대, 270대, 280대, 290대, 300대, 310대, 320대, 330대, 340대, 350대, 360대, 370대, 380대, 390대, 400대, 410대, 420대, 430대, 440대, 450대, 460대, 470대, 480대, 490대, 500대, 510대, 520대, 530대, 540대, 550대, 560대, 570대, 580대, 590대, 600대, 610대, 620대, 630대, 640대, 650대, 660대, 670대, 680대, 690대, 700대, 710대, 720대, 730대, 740대, 750대, 760대, 770대, 780대, 790대, 800대, 810대, 820대, 830대, 840대, 850대, 860대, 870대, 880대, 890대, 900대, 910대, 920대, 930대, 940대, 950대, 960대, 970대, 980대, 990대, 1000대, 1010대, 1020대, 1030대, 1040대, 1050대, 1060대, 1070대, 1080대, 1090대, 1100대, 1110대, 1120대, 1130대, 1140대, 1150대, 1160대, 1170대, 1180대, 1190대, 1200대, 1210대, 1220대, 1230대, 1240대, 1250대, 1260대, 1270대, 1280대, 1290대, 1300대, 1310대, 1320대, 1330대, 1340대, 1350대, 1360대, 1370대, 1380대, 1390대, 1400대, 1410대, 1420대, 1430대, 1440대, 1450대, 1460대, 1470대, 1480대, 1490대, 1500대, 1510대, 1520대, 1530대, 1540대, 1550대, 1560대, 1570대, 1580대, 1590대, 1600대, 1610대, 1620대, 1630대, 1640대, 1650대, 1660대, 1670대, 1680대, 1690대, 1700대, 1710대, 1720대, 1730대, 1740대, 1750대, 1760대, 1770대, 1780대, 1790대, 1800대, 1810대, 1820대, 1830대, 1840대, 1850대, 1860대, 1870대, 1880대, 1890대, 1900대, 1910대, 1920대, 1930대, 1940대, 1950대, 1960대, 1970대, 1980대, 1990대, 2000대, 2010대, 2020대, 2030대, 2040대, 2050대, 2060대, 2070대, 2080대, 2090대, 2100대, 2110대, 2120대, 2130대, 2140대, 2150대, 2160대, 2170대, 2180대, 2190대, 2200대, 2210대, 2220대, 2230대, 2240대, 2250대, 2260대, 2270대, 2280대, 2290대, 2300대, 2310대, 2320대, 2330대, 2340대, 2350대, 2360대, 2370대, 2380대, 2390대, 2400대, 2410대, 2420대, 2430대, 2440대, 2450대, 2460대, 2470대, 2480대, 2490대, 2500대, 2510대, 2520대, 2530대, 2540대, 2550대, 2560대, 2570대, 2580대, 2590대, 2600대, 2610대, 2620대, 2630대, 2640대, 2650대, 2660대, 2670대, 2680대, 2690대, 2700대, 2710대, 2720대, 2730대, 2740대, 2750대, 2760대, 2770대, 2780대, 2790대, 2800대, 2810대, 2820대, 2830대, 2840대, 2850대, 2860대, 2870대, 2880대, 2890대, 2900대, 2910대, 2920대, 2930대, 2940대, 2950대, 2960대, 2970대, 2980대, 2990대, 3000대, 3010대, 3020대, 3030대, 3040대, 3050대, 3060대, 3070대, 3080대, 3090대, 3100대, 3110대, 3120대, 3130대, 3140대, 3150대, 3160대, 3170대, 3180대, 3190대, 3200대, 3210대, 3220대, 3230대, 3240대, 3250대, 3260대, 3270대, 3280대, 3290대, 3300대, 3310대, 3320대, 3330대, 3340대, 3350대, 3360대, 3370대, 3380대, 3390대, 3400대, 3410대, 3420대, 3430대, 3440대, 3450대, 3460대, 3470대, 3480대, 3490대, 3500대, 3510대, 3520대, 3530대, 3540대, 3550대, 3560대, 3570대, 3580대, 3590대, 3600대, 3610대, 3620대, 3630대, 3640대, 3650대, 3660대, 3670대, 3680대, 3690대, 3700대, 3710대, 3720대, 3730대, 3740대, 3750대, 3760대, 3770대, 3780대, 3790대, 3800대, 3810대, 3820대, 3830대, 3840대, 3850대, 3860대, 3870대, 3880대, 3890대, 3900대, 3910대, 3920대, 3930대, 3940대, 3950대, 3960대, 3970대, 3980대, 3990대, 4000대, 4010대, 4020대, 4030대, 4040대, 4050대, 4060대, 4070대, 4080대, 4090대, 4100대, 4110대, 4120대, 4130대, 4140대, 4150대, 4160대, 4170대, 4180대, 4190대, 4200대, 4210대, 4220대, 4230대, 4240대, 4250대, 4260대, 4270대, 4280대, 4290대, 4300대, 4310대, 4320대, 4330대, 4340대, 4350대, 4360대, 4370대, 4380대, 4390대, 4400대, 4410대, 4420대, 4430대, 4440대, 4450대, 4460대, 4470대, 4480대, 4490대, 4500대, 4510대, 4520대, 4530대, 4540대, 4550대, 4560대, 4570대, 4580대, 4590대, 4600대, 4610대, 4620대, 4630대, 4640대, 4650대, 4660대, 4670대, 4680대, 4690대, 4700대, 4710대, 4720대, 4730대, 4740대, 4750대, 4760대, 4770대, 4780대, 4790대, 4800대, 4810대, 4820대, 4830대, 4840대, 4850대, 4860대, 4870대, 4880대, 4890대, 4900대, 4910대, 4920대, 4930대, 4940대, 4950대, 4960대, 4970대, 4980대, 4990대, 5000대, 5010대, 5020대, 5030대, 5040대, 5050대, 5060대, 5070대, 5080대, 5090대, 5100대, 5110대, 5120대, 5130대, 5140대, 5150대, 5160대, 5170대, 5180대, 5190대, 5200대, 5210대, 5220대, 5230대, 5240대, 5250대, 5260대, 5270대, 5280대, 5290대, 5300대, 5310대, 5320대, 5330대, 5340대, 5350대, 5360대, 5370대, 5380대, 5390대, 5400대, 5410대, 5420대, 5430대, 5440대, 5450대, 5460대, 5470대, 5480대, 5490대, 5500대, 5510대, 5520대, 5530대, 5540대, 5550대, 5560대, 5570대, 5580대, 5590대, 5600대, 5610대, 5620대, 5630대, 5640대, 5650대, 5660대, 5670대, 5680대, 5690대, 5700대, 5710대, 5720대, 5730대, 5740대, 5750대, 5760대, 5770대, 5780대, 5790대, 5800대, 5810대, 5820대, 5830대, 5840대, 5850대, 5860대, 5870대, 5880대, 5890대, 5900대, 5910대, 5920대, 5930대, 5940대, 5950대, 5960대, 5970대, 5980대, 5990대, 6000대, 6010대, 6020대, 6030대, 6040대, 6050대, 6060대, 6070대, 6080대, 6090대, 6100대, 6110대, 6120대, 6130대, 6140대, 6150대, 6160대, 6170대, 6180대, 6190대, 6200대, 6210대, 6220대, 6230대, 6240대, 6250대, 6260대, 6270대, 6280대, 6290대, 6300대, 6310대, 6320대, 6330대, 6340대, 6350대, 6360대, 6370대, 6380대, 6390대, 6400대, 6410대, 6420대, 6430대, 6440대, 6450대, 6460대, 6470대, 6480대, 6490대, 6500대, 6510대, 6520대, 6530대, 6540대, 6550대, 6560대, 6570대, 6580대, 6590대, 6600대, 6610대, 6620대, 6630대, 6640대, 6650대, 6660대, 6670대, 6680대, 6690대, 6700대, 6710대, 6720대, 6730대, 6740대, 6750대, 6760대, 6770대, 6780대, 6790대, 6800대, 6810대, 6820대, 6830대, 6840대, 6850대, 6860대, 6870대, 6880대, 6890대, 6900대, 6910대, 6920대, 6930대, 6940대, 6950대, 6960대, 6970대, 6980대, 6990대, 7000대, 7010대, 7020대, 7030대, 7040대, 7050대, 7060대, 7070대, 7080대, 7090대, 7100대, 7110대, 7120대, 7130대, 7140대, 7150대, 7160대, 7170대, 7180대, 7190대, 7200대, 7210대, 7220대, 7230대, 7240대, 7250대, 7260대, 7270대, 7280대, 7290대, 7300대, 7310대, 7320대, 7330대, 7340대, 7350대, 7360대, 7370대, 7380대, 7390대, 7400대, 7410대, 7420대, 7430대, 7440대, 7450대, 7460대, 7470대, 7480대, 7490대, 7500대, 7510대, 7520대, 7530대, 7540대, 7550대, 7560대, 7570대, 7580대, 7590대, 7600대, 7610대, 7620대, 7630대, 7640대, 7650대, 7660대, 7670대, 7680대, 7690대, 7700대, 7710대, 7720대, 7730대, 7740대, 7750대, 7760대, 7770대, 7780대, 7790대, 7800대, 7810대, 7820대, 7830대, 7840대, 7850대, 7860대, 7870대, 7880대, 7890대, 7900대, 7910대, 7920대, 7930대, 7940대, 7950대, 7960대, 7970대, 7980대, 7990대, 8000대, 8010대, 8020대, 8030대, 8040대, 8050대, 8060대, 8070대, 8080대, 8090대, 8100대, 8110대, 8120대, 8130대, 8140대, 8150대, 8160대, 8170대, 8180대, 8190대, 8200대, 8210대, 8220대, 8230대, 8240대, 8250대, 8260대, 8270대, 8280대, 8290대, 8300대, 8310대, 8320대, 8330대, 8340대, 8350대, 8360대, 8370대, 8380대, 8390대, 8400대, 8410대, 8420대, 8430대, 8440대, 8450대, 8460대, 8470대, 8480대, 8490대, 8500대, 8510대, 8520대, 8530대, 8540대, 8550대, 8560대, 8570대, 8580대, 8590대, 8600대, 8610대, 8620대, 8630대, 8640대, 8650대, 8660대, 8670대, 8680대, 8690대, 8700대, 8710대, 8720대, 8730대, 8740대, 8750대, 8760대, 8770대, 8780대, 8790대, 8800대, 8810대, 8820대, 8830대, 8840대, 8850대, 8860대, 8870대, 8880대, 8890대, 8900대, 8910대, 8920대, 8930대, 8940대, 8950대, 8960대, 8970대, 8980대, 8990대, 9000대, 9010대, 9020대, 9030대, 9040대, 9050대, 9060대, 9070대, 9080대, 9090대, 9100대, 9110대, 9120대, 9130대, 9140대, 9150대, 9160대, 9170대, 9180대, 9190대, 9200대, 9210대, 9220대, 9230대, 9240대, 9250대, 9260대, 9270대, 9280대, 9290대, 9300대, 9310대, 9320대, 9330대, 9340대, 9350대, 9360대, 9370대, 9380대, 9390대, 9400대, 9410대, 9420대, 9430대, 9440대, 9450대, 9460대, 9470대, 9480대, 9490대, 9500대, 9510대, 9520대, 9530대, 9540대, 9550대, 9560대, 9570대, 9580대, 9590대, 9600대, 9610대, 9620대, 9630대, 9640대, 9650대, 9660대, 9670대, 9680대, 9690대, 9700대, 9710대, 9720대, 9730대, 9740대, 9750대, 9760대, 9770대, 9780대, 9790대, 9800대, 9810대, 9820대, 9830대, 9840대, 9850대, 9860대, 9870대, 9880대, 9890대, 9900대, 9910대, 9920대, 9930대, 9940대, 9950대, 9960대, 9970대, 9980대, 9990대, 10000대, 10001대, 10002대, 10003대, 10004대, 10005대, 10006대, 10007대, 10008대, 10009대, 10010대, 10011대, 10012대, 10013대, 10014대, 10015대, 10016대, 10017대, 10018대, 10019대, 10020대, 10021대, 10022대, 10023대, 10024대, 10025대, 10026대, 10027대, 10028대, 10029대, 10030대, 10031대, 10032대, 10033대, 10034대, 10035대, 10036대, 10037대, 10038대, 10039대, 10040대, 10041대, 10042대, 10043대, 10044대, 10045대, 10046대, 10047대, 10048대, 10049대, 10050대, 10051대, 10052대, 10053대, 10054대, 10055대, 10056대, 10057대, 10058대, 10059대, 10060대, 10061대, 10062대, 10063대, 10064대, 10065대, 10066대, 10067대, 10068대, 10069대, 10070대, 10071대, 10072대, 10073대, 10074대, 10075대, 10076대, 10077대, 10078대, 10079대, 10080대, 10081대, 10082대, 10083대, 10084대, 10085대, 10086대, 10087대, 10088대, 10089대, 10090대, 10091대, 10092대, 10093대, 10094대, 10095대, 10096대, 10097대, 10098대, 10099대, 10100대, 10101대, 10102대, 10103대, 10104대, 10105대, 10106대, 10107대, 10108대, 10109대, 10110대, 10111대, 10112대, 10113대, 10114대, 10115대, 10116대, 10117대, 10118대, 10119대, 10120대, 10121대, 10122대, 10123대, 10124대, 10125대, 10126대, 10127대, 10128대, 10129대, 10130대, 10131대, 10132대, 10133대, 10134대, 10135대, 10136대, 10137대, 10138대, 10139대, 10140대, 10141대, 10142대, 10143대, 10144대, 10145대, 10146대, 10147대, 10148대, 10149대, 10150대, 10151대, 10152대, 10153대, 10154대, 10155대, 10156대, 10157대, 10158대, 10159대, 10160대, 10161대, 10162대, 10163대, 10164대, 10165대, 10166대, 10167대, 10168대, 10169대, 10170대, 10171대, 10172대, 10173대, 10174대, 10175대, 10176대, 10177대, 10178대, 10179대, 10180대, 10181대, 10182대, 10183대, 10184대, 10185대, 10186대, 10187대, 10188대, 10189대,



REACH FOR THE CROWN



데이-데이트



ROLEX